朝鮮日報
夕刊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華府條約廢棄는當分猶豫
比率反對로直進
方針으로써廢棄할것은確定
通告는十月豫備會商時에?
海軍、政府間諒解成立

【東京電話聯合】將來될海軍會議의對策中가장重大한事項은華盛頓條約廢棄問題로이에對한政府의態度는各方面으로부터注視되야잇는바 就中比率主義에어데까지反對하기로되여잇슴으로該條約의廢棄에對하야는曩者五相會議에서岡田首相、大角海相、廣田外相、藤井藏相等各關係大臣도이것을受諾하야廢棄通告의時期如何가問題로되여잇는바 今回政府도드듸여左와如한方針을決定하야 不動의精神으로써臨하게되엿다卽

一、五、五、三의比率을決定한 華盛頓條約의比率主義는 日本의對軍縮所信에背馳되는것임으로 이것을廢棄할自由의立場에서 國防의安全感을確保하야 國際平和의確立을期할

一、右廢棄方針을 確立하는以上 그時期는 最適의 情勢에서 行할것으로 一日을다툴것이안이요 十月부터 開會豫定인 倫敦豫備會商은 單히技術的問題의 討議인今 豫備會商의存立의理由가 薄弱하게됨으로 各國은 各國의方途로부터 軍縮案을 提示하야 相當히 具體的交涉이 行하게될것은 當然한일이다 따라서 各國의意向이 分明함으로써 그때에나 斷乎한 政府의主張을 披瀝하면조타 又會議할境遇 政府의確固한 腹案이잇는以上 爲先廢棄時日의 決定을하지안음에잇다

華盛頓條約廢棄에 가장强硬한 意見을가진 海軍實施部隊도 政府의動向을注目하고잇든바 岡田首相이官邸에 貴衆兩院의議員을招待하엿슬때에 華盛頓條約廢棄와 同意語인比率主義撤廢를 强調하고 다시十二日軍艦金剛에서 大角海相으로부터 華盛頓條約廢棄決定에對한 政府의方針을聽取한 末次聯合艦隊司令長官以下 首腦部도 滿足한뜻을表하야 一切의疑念을 解消하고 政府에依賴하야 今後의難局打開에 邁進하기를 誓約하얏슴으로 그러케問題가되엿든 華盛頓條約廢棄에 關한問題는 一切海軍當局과 政府의諒解가成立되엿슴으로 旣定方針에依하야 堂堂한 態度를가지고 次期海軍會議에 臨하게되엿다 (寫眞은 大角海相)

蘇聯의聯盟加入
九月總會에提議는明白
壽府外交界의觀測

【電通쥬네브十四日發】 外交界에서는 蘇聯邦의聯盟加入에 對한重要한政治的障害는 除去되엿슴으로 九月의聯盟總會에서는 蘇聯邦의加入이提議될것은 明白한것이라고 보고잇다 蘇聯邦의 聯盟負擔金額도 이決定하야잇다고 하며 또한 波蘭은 蘇聯邦이常任理事國의椅子를獲得할수잇는 可能性잇는이機會를 利用하야 波蘭自國도 常任理事國이되려는 野心을가지고 暗中飛躍을하고잇는바 波蘭에對하야는 大國이反對하는模樣이다

伊墺首相近日會見

【倫敦十八日發聯合】 確聞한바에依하면 墺太利首相슈슈닉氏는 來二十一日羅馬에서 뭇솔리니首相과會見하야 나치스暴動後의 墺太利、伊太利의關係에對하야 重要한協議를行할豫定이라고하며 右會議에서는 둘프스前首相暗殺事件以後의兩國間에生한 種種의重要問題가 討議될것이라고 觀測되야잇다 임이 實現된못솔리니首相과 다라비公의 會見과關聯하야當地에서는 그推移를자못重大視하고잇다

維也納으로向發 파펜公使

【電通伯林十四日發】 墺太利駐箚獨逸公使에 任命된前副總理파펜氏는 本日飛行機로써任地維也納에向하얏다

『알라스카』로向하는 米陸軍『마틴』機十臺

過般의 米陸軍의 자랑 마틴新爆擊機(積載量二千四百파운드、時速二百二十哩)十臺가 出發에臨하야 華府의위싱톤記念塔上을 低空飛行하야 告別하는光景

某事件俄然發展
前閣僚兩氏召喚
司直의손政黨에追及

【東京電話聯合】 某重大事件에關한그後의 司直의取調는 斷然進行하고잇는바 最近에이르러政界關係方面에對하야 새로히取調할 必要가發生한結果 近近政友會에 常務를有한某元閣僚와밋 前閣僚의喚問을 豫想하는模樣이다 某元閣僚에關하야는去七月十五日第一回의 取調가行하얏는바 그後進이當局에滿足하지못하야 다시證人으로再次의召喚을보게될것인바 小原前法相는十四日 午後 檢事局에 出頭하야 長時間에亘한取調를受하얏다 右結果問題는 數日中에依然히展開할것으로注目되여잇다

對日及北中問題
方針不變宣明

【電通南京十四日發】 本日國民政府側으로부터 非公式으로發表한바에 依하면廬山會議에서蔣、汪、黃三氏間에 決定한對日및北中問題의 外交方針은左와如하다

一、黃郛氏를 至急北上식혀局部的案件으로써 戰區問題其他의解決을圖할것 但北中案件의處理는蔣、汪、黃三氏의連帶責任일것

一、對日外交方針은 조곰도變更하지안헛다 그러나一部世上에서는變更되엿다고하는億測과誤解가不少한故로汪精衛는南京에歸京한後 適當한形式으로써 對日外交不變更의態度를宣明하야써內外의疑惑을풀것이라고하엿다

政治的意味에서
蘇聯側再提案?
다음幕은廣田유레네프會見
北鐵交涉 과外務當局의觀測

【東京電話聯合】 滿洲國大橋外交次長과 유레네프大使의會見結果 北鐵讓渡에對한 蘇聯側의 態度는 誠意가업는것이라하야 今後滯東하야도 何等効果가업는것이라고 撤歸를決意하얏다 滿洲國側代表大橋次長은 北鐵交涉一個年三個月紆餘曲折의限이업는 經緯에對하야詳細히報告함과 同時의交涉의停頓을보게되는蘇聯邦의 不誠意한態度에 關하야本國政府와最後的으로主要協議를行하게되엿다 右에對한蘇聯側의態度如何는局面打開의當面의問題로써注目되고잇는바가즈롬스키-極東部長의 撤歸說도잇는此際右에對하야 日本外務首腦部의意向은 左와如하다

大橋代表의新京撤歸는交涉의終幕으로는 認定하지안으나 該交涉이停頓되게된것은實로遺憾으로生覺하는바이다 大橋代表의撤歸聲明中에잇는바와가티 將來의局面打開의열쇠는 오즉蘇聯邦의態度如何에달린것으로 蘇聯邦의公正妥當한 動向을가장期待하는바인데 유레네프大使는廣田外相의仲介案에對하야 이것을 拒絶하여왓다고하지마는 蘇聯邦側의所謂最後的案에는아직接見할 機會가업섯고 大橋代表의撤歸를契機로하야 蘇聯邦側이 何等政治的意味에서廣田外相에斡旋을 要求하는同時에所謂最後案에對하야若干再考하고提案하야올것이라는推測에 將來할廣田유레네프會見結果 그것이北鐵問題에關한 根本的局面의展開할 機會이며 가즈롬스키氏의撤歸 其他의問題도右會見結果에依하야 決定될것이라고觀測되여잇다

交涉決裂如何는 蘇聯責任
大橋代表車中談

【電通國府津電話】 決裂된北鐵讓渡交涉에 憤然히歸國의途에登한 滿洲國側代表大橋忠一氏는 車中左와如히語하얏다 北鐵交涉은 蘇聯側이廣田外相의最後的仲介案을 拒絶하야 交涉을圓滿히成立식힐誠意를보이지안는以上 滿洲國側으로서는 今後蘇聯側이如何한態度를取할는지 잘알수업슴으로 自己는今回東京을 準備하야 歸滿하게되엿다 蘇聯側이北鐵讓渡를가지고 交涉의成立을 圖할것인가? 或은그대로 交涉을決裂식힐 態度를取할것인가? 北鐵交涉의成否如何는 全혀蘇聯側의態度에달려잇다 滿洲國側은 廣田外相의仲介案에 對하야서도 多額의買收額을 하게되여 公債를日本서 發行한다하야도 非常한困難이잇슴으로 到底히 그以上承認키困難하다 그러나廣田外相의仲介案은 여러가지意味에서보와 妥當한것이라고보고 또한 外相의誠意잇는 斡旋을感謝히 滿洲國側으로서는 이것을 最後案으로써 承諾한것이엿다 그러나蘇聯側은 이것을拒絶하는 態度를取한

□□가法은아직도存在하야잇는故로 決裂이나 안이나는 立場은蘇聯側의態度에 달리여잇다 萬一蘇聯側이誠意를 表示할生覺이라면 我等은東京에엇지안이하야도 東京에는 丁士源公使도잇고 또한廣田外相은 斡旋할일이으로蘇聯側이我等에 接近하야올 方途는얼마든지잇다 萬一蘇聯側으로하야금 我等의撤歸로依하야 交涉決裂에 到達한것이라고 聲明한다면交涉決裂의責은 分明히蘇聯側에잇다 蘇聯側이 我等도交涉의成立은斷念치안흠 交涉을決裂식힐生覺이라면我 如何한態度에出할는지 極히注意하야靜觀할必要가잇다我等은極東平和를爲하야最善을다한것임으로 이以上如何한事態에 이를는지는 神의攝理

以上滿洲國側으로서는 이以上 何等考慮할 餘地가업다 滿洲國은 今回我等의 撤歸를 통가지고 交涉決裂을 聲明한것은안이다 蘇聯側이誠意를表示하야온다면 交涉의打開에맷길밧게업다 더욱히昨日(十三日)유레네프大使와 會見할때에 大使는多少讓步할餘地가잇다는點을 암엇는바 廣田外相의 仲介案까지至難하다는데이르러서는 多少讓步하다고하야도 何等問題가되지안는다

自動車衝突때문에
獨피-링航空相重傷

【伯林十五日發聯合】 航空相괴-링氏는 大統領選擧運動遊說途中十四日夜 쾰른東方廿哩의 아이브링에갓섯는데 同地에서 搭乘한自動車와 貨物自動車가衝突되야 數個所의打撲傷、顔面밋무릅에裂傷을 負하얏다、氏는直時 르제하임病院에 收容되야 應急手當을受한後오베르사베르흐私邸에赴하얏다 相當한重傷인데生命에는 異狀업는模樣이다 (寫眞은 괴-링氏)

墺國陸軍增員을
關係諸國에交涉
各國은好意로考慮

【電通維也納十四日發】 가장 信賴할만한側의情報에依하면 墺太利는 베르사이條約에依하야禁止되야잇는 陸軍의增員에關하야 그同意를어드려고各關係國과交涉을開始하야 四日聯盟理事會에 提議할 模樣이라한다

【電通倫敦十四日發】 墺太利는曩者의 나치스暴動에鑑하야 國防의 充實에依하야그危機의再發에備하려고 英國、佛蘭西、伊太利等에對하야베르사이條約에依한 墺太利의正規陸軍兵三萬二千人의 制限을넘어特別補助軍隊로하야다시八千의陸軍兵增員을交涉하얏는바 關係各國도墺太利의立場에同情하야右交涉에目下好意的考慮를拂하고잇다

日本이挑戰的態度
蘇聯은遲延主義
北鐵問題 와촤이나프레스紙論評

【上海十四日發聯合】 上海英字新聞및漢字新聞은 北鐵讓渡交涉에關하야 新京通信與斯科通信等各地方스 日蘇兩國關係에關한倫敦各新聞紙의論說等을第一面에大大的으로 揭載하고잇는데特히 從來부터日蘇兩國關係를異常히 取扱하든촤이나프레스는今番도 쎈세이순날한取扱을하엿다 그社說要旨는如左하다

日蘇兩國어떠便이挑戰的態度를取하고잇는지는 알수업스나七月號포-린아페어즈에揭載되엿든토-스大尉의 論文으로도明確한바 蘇聯政府는될수잇는대로 遲延식히고저한다 그러나日本이挑戰的態度를取하고잇는것은疑心할것업다 一方노드최이나、데일리、뉴-스紙는 滿洲國政府는 될수잇는대로 安價로北鐵을買收코저한다 蘇聯政府는 此際日本政府의 提議를受諾함이조흘것이다 라고 多少穩健한論을記述하엿다

文治實力兩派
步調不一
西南派陣營混亂

【電通上海十四日發】 胡漢民氏以下二十一名의 西南元老는第五大全體大會를 嚴重監視하기로決定하고 極力蔣介石氏의獨裁政權의打破에 關한宣傳에努力하고잇는바 西南主力派의陳濟棠、李宗仁、白崇禧氏等는여기에呼應하야 蔣介石氏에對하야 中國國是의大改革에關한意見書를보낸것等으로 文治派와漸次떠러지는 態度를보이고잇다 實力派는五全大會에는林翼中、陳慶秀等을代表로보내기로決定하고 五全大會를압두고西南派의兩派는벌서부터 步調의不統一을나타내고잇다

對日滿政策을
黃汪蔣三巨頭
秘密裡에會合協議

【電通上海十四日發】 廬山會議에出席한 黃郛氏는아직廬山에滯在中인데 十三、四兩日에 三氏가秘密裡에 會合하고對日、對滿外交策에 關하야具體的討議를하엿다 右具體案은過日의大連會議에서 議論한七項目을主로한것이다

八面鋒

◇ 豫備會商도되기前에 꼭지가 말낭말낭하니 다음에 열릴幕도 비슷이 짐작된다。

◇ 北鐵交涉、數年을두고 끌어오더니 畢竟엔 또停頓。

◇ 停頓이打開되는지 打開가停頓인지 처음부터 알수업는수작이。

◇ 乙丑洪水의 쓰라린經驗으로 二村洞民이 三南水災에同情

◇ 寡婦의서름 寡婦가안다고、품아시格이라면 何必二村洞民이리오。

總督府新規要求
一億千二十萬圓
前年에比하야三千萬圓激增
豫算總額二億七千萬圓?

總督府明年度豫算은 各局에서 지난十日까지에 全部財務局에 遞附되야 司計課에서 方今查定中으로 今月中에는 查定을 終了하고 九月十日頃에는 林財務局長이 新豫算案을 携帶하고 渡東하야 大藏當局과 折衝할터이라한다 그리고 明年度의新規豫算要求는 總額一億一千二十萬圓에達하야 前年에比하여도 實로三千萬圓의激增으로 結局新規要求額의 二割內外로 查定되리라는데 明年度豫算은 昨年에比하야 二千餘萬圓의 增加로 約二億七千餘萬圓이나 될것으로보인다 各局의新規要求額은 左와如하며 其詳細內容은 個別的으로旣報한바와갓다

遞信局	六〇〇萬圓	殖產局	二五〇
專賣局	五〇〇	財務局	一四〇
鐵道局	二、〇〇〇	警務局	四〇〇
內務局	三、五〇〇	學務局	四〇〇
農林局	一、九〇〇	法務局	三三〇
		官房其他	一、〇〇〇
		計	一一、〇二〇

師範教育機關擴張
警察官大增員
總督府廳舍도增築할터
結局은二割로查定?

總督府明年度新規豫算要求額은 前記와갓거니와 各局의新規事業計劃의內容을簡單히하면如左하다

遞信局關係
一、京城—羅南間航空計劃
一、新義州—新京間航空計劃
一、京城—木浦間航空計劃
一、前記航空路新設計劃에伴한飛行場設置費
一、電信電話設備改善及新設
一、郵便所昇格及新設費

專賣局關係
一、鹽田擴張計劃
一、阿片栽培監督及煙草栽培擴張

鐵道局
一、京城—釜山—新義州間複線改修
一、鐵道線路補强費
一、鐵道職員舍宅擴張及待遇改善

內務局關係
一、地方稅制整理
一、第三次窮民土木事業
一、道路橋梁改修新設
一、大田光州全州三邑府昇格
一、京城府副府尹設置

農林局
一、北朝鮮移民獎勵補助
一、米穀統制
一、土性調查
一、林野調查
一、肥料統制

一、殖產局關係
一、國立製煉所設立
一、鑛業資源調查
一、工業資源調查
一、北洋漁業進出獎勵補助

財務局關係
一、稅務監督局及稅務署廳舍新築費
一、稅關支署及出張所新設

學務局
一、簡易學校增設
一、師範教育機關擴張
一、滿洲移民及北朝鮮移民斡旋
一、中等學校增設補助
一、學校衛生官設置費
一、始政記念事業費
一、普校學年延長

法務局關係
一、少年刑務所一個所增設
一、拘置監增築
一、免囚保護事業擴充及保護課新設
一、法院支廳五個所復活及公州地方法院大田移轉費
一、判檢事增員費

警務局關係
一、渡航朝鮮人取締警官七百餘名增員
一、警備船二隻建造
一、大阪駐在員派遣
一、移動警察新設
一、警察官武裝擴充
一、警察署新築
一、留置場增築

官房其他
一、都市計劃課新設
一、總督府廳舍增築
一、總督官邸新築
一、外事課滿洲移民計劃
一、滿洲集團部落設置
一、在滿朝鮮農民保育費

農村救濟에
國防豫算充當은不能
陸相의見解如此

【電通東京電話】 兩價低下및全國的不作氣運에伴한 農村對策問題는 益益深刻化하려는情勢에잇는바 健全한農村의存在가陸軍의念願인 廣義의國防即國家總動員의實現과 絶對不可分의關係에잇는것을理由로하야 農村救濟에 國防豫算의一部를 이方面에割當하여주기를 바란다는陳情은 大日本聯合會長黑木三次伯을爲始하야 各方面으로부터 林陸相에對하야行하고잇는바 問題의 性質上林陸相도 特히深甚한關心을가지고 此等의陳情에相對하고잇다 그러나 豫算에對한 林陸相의觀念은 國防의 責任을다하기爲하야 最少限度의 施設과實現에잇고 또한現在의諸施設은 이最少限度에 아즉도相當한距離가잇서 如何히農村對策이라고 하야도 陸軍豫算의一部를 農村對策에 配定하는것等은 當分間可望이 업는것이라고 林陸相以下陸軍省首腦部는觀測하고잇다 假令農村의現狀이 廣義國防에 影響되는것이 明瞭하게 된다면 陸軍에서도農村對策에 充分한施設을行하기로 主張하게될것이고 此際當然히그 豫算에對備될 것을考慮하야 目下陸軍으로서의準備와研究에 急하고잇다

準備工作의基礎
들保健에合格圈
內에肉迫하라!!

受驗と學生

呼吸器疾患と豫防對策
消化器衛生とその對應策
鼻耳疾患と頭腦の働き
自瀆行爲と其矯正對策
心腎病の症狀と其對策法
志望決定と色盲問題
眼と腦の操縱法二十則
受驗生と記憶障害排擊法
眞性近視と假性近視の話
健康相談に現れたる諸疾患
▼不合格病の實際と其對策法
▼昭和九年入試英語問題大觀
▼神戶高等商船口頭試問の話
▼海軍生徒採用試驗答案講評
▼全國高專體格檢查の標準
▼漢文解釋力表現の要諦
▼山川新文學博士の獨學談
▼獨學苦學立志傳中の人々
▼數學根柢一百題解答(下)
▼國漢根柢一百題解答(下)
▼校歌ものがたり第三篇
▼和英重要問題十二箇月講義
▼代幾融合問題十二箇月講義
▼入試和文英譯問題古今集
▼海兵昭和九年度合格者番附
▼最近の各種入學檢定案內

不合格
病對策
研究號

九月特輯 (定價)四十錢 (送料二錢)
研究社 (東京富士見町) (振替東京一六二〇八番)

判明된二次風水害
人命만五十八名
浸水千餘戶、全半潰七百餘戶
全南沿岸一帶尤甚

【十四日夜光州支局發電】 사오일이래의 폭풍우로 말미암아전남 일대에는 특히 무안군(務安郡) 령광군(靈光郡) 진도(珍島)군 담양(潭陽)군 순천(順天)군 등이 가장피해가심하야 십사일에도 새로판명된피해를보면 사망자사명 (무안두명 령광두명) 행방불명자칠명(무안두명진도오명)부상자십명 (령광팔명진도두명)이고가옥피해는 류실된것이 령광에서륙호 진도에서륙호 합십이호 전괴가무안에한호 령광에 십구호 담양에십이호진도에삼십팔호 합칠십호 반괴가 무안에사호 순천에이호 담양에 십오호령광오호 진도륙십이호 합팔십팔호침수가옥이령광에두호진도에십칠호순천에삼십오호 합오십사호에 달하엿다 그리고 선박의 피해는전괴가 무안서한척 진도서네척합오척 반괴가무안에서 두척잇섯다

그리하야 이것을 제이차수해의 루계를하여보면

一、人命死傷—死者一八 負傷二二 行方不明一八

一、家屋被害—流失一八 全潰二六七 半潰四七七 浸水一、二七一

一、船舶被害 全潰三三 半潰三七

전긔와가치 전남의 제이차폭풍우피해는 실로참혹하든 수해에 비하여보면 통계로는 적으나부분적으로는 더욱참담한 피해를 입은것을알수잇다

中部以北各地도
漸次로快晴한다
南朝鮮은날이맑어

십삼일부터시작하야오기시작한비는십사일 아침부터 경성지방은무섭게 폭주하야밤새껏 나리엇고십오일새벽에 겨우 비가거덧다작십사일의 우량은 륙십이미리이다 십오일일기는 호릿더이고명일도 호릴터이라한다 북부지방도 중부지방과 한가지로 호리어잇고 남부지방은 천기가 회복되엿다 중부와북부도 금명간당천이 계속되다가 십칠일부터는쾌청이된다

長城에서도
一名이또溺死
交通全部杜絶

【長城】 지난팔일밤부터 나려오는바람과 비는 다시전남장성군을엄습하야 황룡강(黃龍江)은범람하여 연변을 경계하든중인데 월평리(月坪里)로부터 평장(?)으로 통하는 세월교(?)는 조곰남어가 오면통행이 곤난하든중인데 지난십일오후네시경에 월평리에 사는하금성(河錦成)(三二)은 다리를건너가는 중도에 별안간나려오는급류에 휩쓸려 무참이죽엇다한다

簡易校用教科書
總督府에서新編中

보통교육긔관의 보충과 보급책으로 설립한간이학교는 총독부에서다시일면일교계획을세우게되엿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현재에는 아즉간이학교의 전용교과서가업는관계로교육상불편이만흠으로 총독부 에서는 명년도에는 간이학교의 전용교과서로수신、조선어、산술、국어의네과목교과서를편찬하게되야 방금편찬과에서 준비중 이라는데 명년사월부터는 정식으로사용하게될터이라한다

社會社業協會의
募捐十萬圓突破

총독부 조선사회협회에서 모집중인 남조선수해 의연금모집은 십사일 정오현재가 십만일천이백륙십구원삼십삼 건에달하엿다

異域同胞들의熱誠
東京의共和會員들은
비누行商으로釀金
五十餘圓利得을托送

삼남리재민구제의소리는조선내는물론 멀리이역에가잇는 혁제들사히에서 뒤를니어 이러나고잇다동경 (東京) 에잇는공화회본부 (共和會本部) 에서는아래의회원제씨가 빨래비누 행상을하야리익남은것을모은 것이오십칠원 칠십사전에달하야 이것을본사로보내왓다

洪殷植 洪昌鎬 金在洙 金俊鎬 金秉鎬 李宗奉 李守憲 金文鎬 李成憲 洪承閣 金溫 曹又煥 洪植 洪鶴植 金福基 韓壽天 鄭濟三 金興錄 鄭明會 李啓鳳 李載斗 鄭漢基 洪連植 李司憲 洪桂植 李啓錫 羅灝俊 羅明云 羅順均 丁斗玉 韓奉五 柳在彬

奉天의同胞들
賃金一部를
모두어本社로보내

멀리봉천(奉天)에가잇는동포중삼성교피공창(三省膠皮工廠)직공일동은 이십여원을 거두엇고 대동인쇄소(大同印刷所)직공은 십사원을 모앗고 그곳서탑교회(西塔敎會)에서 또한 삼십원에 각가운돈을 모아서 본사봉천지국을거처서 본사로 보내왓다

土浦에잇는
勞働同胞
十二圓募集

자성현토포(茨城縣土浦)에가잇는 동포들도 또한십이원십칠전을모아서

『우리도역시 아츰먹어서저녁에먹는처지나 동정을 금치못하며 이미죽은 사람은다시살리울수업스나 나머잇는 생명의 기마분의일이라도 구호할가하야 생활비를 얼마식절약하야모아보내나이다』

라고한 간절한 편지와함께본사로 내왓다

平壤三種檄文犯
六名이全部被檢
五月勞働祭以來前後三回
郊外西將臺서謄寫

【平壤支局十五日電話】 금년오월일일메이데이를긔하야 평양부내에산포되엿고 또다시 팔월일일에는 평양부내각공장과 병영(兵營)부근에까지 격문이 다수히산포되엿든 사건은 그후평양경찰서에서 범인을붓잡고저 맹렬한활동을 해오는중 십사일오전열한시부터는 평양、대동 (大同)두경찰서가 어떠단서를 어더가지고 련합으로 활동하야드되여주범 전남광주(光州)출생으로 평양항정(港町)사십오번지에거주하는 목도로동자 김기은(金基垠)(二五)을 비롯하야 공범경기도고양군(高陽郡)출생으로 평양부하수구리 (下水口里)이십륙번지 김봉길(金鳳吉)(평남강서(江西)출생으로 평양교구정(橋口町)은하면집(銀河麵屋)에잇는 문성규 (文成奎)(三三)경기도 려주군 (驪州)출생으로 평양 행정(幸町) 유미사(有美社)에고용으로잇는 박선종 (朴善鍾)(三) 신의주행정 (新義州幸町) 려관인객업(引客業)리룡만 (李龍萬)(三三)평양모 신문지국배달부김순진(金淳鎭)(三)등여섯명을전부 붓잡아다가 방금엄중이 취조하는중이다 그들은 평양부내모처에서 등사판을 훔처내여가지고 보통강 건너에 수교회 공동묘지가잇는 서장대(西將臺)장사터러집 마루미테 근거를두고 삼사차나격문을 박여서평양부내에 산포 한것이라한다 증거품으로 등사판등도모다 압수되엿다

主犯金基垠은
上海서潛入
晝間은勞働者生活

그리고 수범김기은(金基垠)은 황두식(黃斗植)이라는별명(別名)이외에다섯가지의 일홈을가젓스며 그는소화륙년 삼월에경성에서 격문을뿌리고 그해사월에 봉천(奉天)을 들러 상해(上海)로가서 중국 공산청년동맹(中國共產青年同盟)제국주의반대 동맹(帝國主義反對同盟) 국제공산청년동맹등 공산주의 운동단체에 가입하야 활동을하다가 소화칠년십월에 가만히평양에드러와서 목도로동을 하면서 작년십월에는 평양기림리(箕林里)에잇는욱련탄공장(旭煉炭工場)의동맹파업을 지도하고최근에는전기와가튼 격문배부의비밀활동을하엿다한다

申鼓松等의公判
禁錮十個月求刑
外二名은各八個月

「우리동무」라는 잡지를 발간하야 동지들에게배부하고 또는발매금지된 공산주의서적을 사서회람하엿다는 사실로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으로기소되여예심을거처 공판으로 회부되엿든 적색연극운동자리찬(李燦)등네명에대한 공판은 십오일오전경성지방법원에서 개정하야 산하(山下)재판장의 심리가 잇슨뒤 좌좌목(佐佐木)검사는각피고인에게금고(禁錮)십개월내지팔개월의 구형을하엿다 판결은오는 이십이일에 언도하기로 되엿다

▲禁錮十個月 申鼓頌

▲禁錮八個月 李燦 姜湖 金兌錫

各務原格納庫
昨日火災
損害十數萬圓

【各務原電話聯合】 십사일오후열시삼십오분 기부현 도엽군 소원촌(岐阜縣稻葉郡蘇原村)육군항공본부 보급부 각무원지부(補給部各務原支部)의제사호격납고(格納庫)로부터 불이나서삼사간에 그창고를태워버리고불은

安奉線土兵
列車에發射
요행무사해

【鐵嶺局着電】 십삼일오후십시십분경에 봉천(奉天)행 제상렬차가 안봉선(安奉線) 사하진(沙河鎭)과하마당(蛤蟆塘)간을 진행할때에 산중에서 돌연무장단수십명이 나타나 렬차를습격하엿스나 피해는 별로업섯고무장단은곳 어디론가 종적을감추엇다

漢江增水五米
漸次로減하고잇다

십사일의비로 한강이 또다시 증수가되엿다 십사일오후 세시에 오미돌삼십오로 증수되엿든것이 점점더하여 십오일오전아홉시현재로 오미돌칠십팔에 올라갓다 이것은 금번비가한강의 상류인 강원도경기도 충청북도등의중부지방에 만히온 까닭이다 한강물에서 뽀—트를타거나 수영을 하기에는 지금상태로는 위험하다 물은십오일 오정부터 줄기시작하는 형편이니 이삼일후이면 완전히 원상대로되리라한다

災害地失業農家
五百戶滿洲移民
總督府에서八萬圓豫算세워
安全農村으로移送

남조선수해 리재민을 구제하기위하야다른지방으로 이주 식혀 재활을 세우고잇든 총독부에서는 외사과에서 위선리재민중으로 백호이천명을 만주국하동、영구요하(滿洲國河東營口遼河) 외안전농촌(安全農村) 에이민을하게되여팔만원의예산으로일간실행하게되엿다한다

女子때문에
몸버린店員
本町署에二名

범죄의리면에는 대개녀자가숨어잇는것이 례사인데 더구나갑협한월급쟁이가 횡령을 하게되는리면에는 반드시 유흥과외입이숨어잇다 시내장곡천정(長谷川町)에잇는 벽라—소음기회사

紅燈下의可憐한戰士
白色奴隷化防止
카페女給雇傭條件等을改善
鍾路警察의新方針

현재종로서에서는 그관내에「바—」여덟곳「카페」열네곳과 류사의 식당삼십구개소를 포용하고잇는데거기에서「네온싸인」에비최여춤추는여급이 이백팔십록명에달한다 그런데 그들에게대한주인의대우또는고용조건등은 매우불리하야 직업전선에나선연약한 전사들은 날마다불우한환경에서 다만떨업시 복종하고잇는처지임으로 종로서 보안계소판(小坂)주임은 얼마전부터이에대한 개선책을강구 중이든바 금번아래와가튼 방침을결정하야 이옥고 관내의각「카페」『빠』식당에 이를 통고하야여급의 고용조건 개선을도모하리라한다

축녀급은 창기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전차금을수백원식을주어 그들은거이 영구한백색노예와가튼 처지에 떠러지고 말음으로 금후여급의전차금은 백원이상은 초월하지못하게하며 둘째녀급들의 합숙소가 대개는 협착하고 비위생적임으로 이를개선하야 상당한위생시설을가하게할것등이다

·그밧게녀급의 신원이 확실하지못하야 소위몽롱녀급이 생겨서어로인하야 여러가지폐해가잇슴으로금후에는여급대장도기생대장과가치 일일히 사진까지철부하야 정확세밀히 해두기로하엿다한다

회계주임으로잇든 삼정의(森正義)(三三)는 지난오월말일경에동회사를나온뒤에 시내명치정(明治町)이정목 화옥려관 (花屋旅館)에머물너잇스면서 과분하게료리집출입을 하는것을 소관본정서원이 수상히생각하고 내사한결과 그는작년팔월부터 금년오월까지 충남례산읍내(忠南禮山邑內)흥신당시계포(興信堂時計鋪)에 [illegible] 회사로 입금된 용기대금 사천삼백여원을 횡령하야 그것을 시내각처의 료리집과 카페—와유곽으로 도라다니며 소비하고잇는사실을 발견하고 십오일밤긴기 화옥려관에서 잠들자고잇는것을 체포하여 방금엄중한취조를하고잇는중이다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에 [illegible] 시계포의 시계만든 이천이백여원을 횡령하여가지고 지난 [illegible] 일경 봉천(奉天)으로 다려낫다가 십사일시내신정(新町) 모유곽에잇는 정부를 만나려고왓다한것을 역시소관본정서원이 선정로상에서발견하고체포하엿다

背恩忘德한
淫奔女

경 경찰문제까지 이르킨바릇사나운녀자가잇다 시내원정 삼정목 모리발관주인 김모는작년봄시내 대도정(大島町)모 유곽에잇는 연화선 延花仙(二四)의 전차금 사백원을 담보하고몸을빼어다가 동거하면서 그돈을갑노라고 주야로 리발로동을하고잇는동안에 연화선은 김재현의친구요 룡산철도국 공장작업부직공으로잇는리오봉(李五峯)(二五)(假名)과눈이마저 비밀한 관계

유곽의 빗을갑허주고 몸을빼내어준남편을 속여가며 그남편의 친구와 뜻을마추다가 틀키어밀

벤또싸가지고
留置場自願

허리에벤또—를차고류치장신세를자원한사람=충남천안군천안면성정리(天安郡天安面聖井里)에원적을두고시내대화정(大和町)이정목사십오번지 유희장고용인장수산 張壽山(三二)은십삼일오후 네시사십오분 술이대취하야 종로사정목 길가에서말숙한 양복을걸치고 오종을누는것을 파출소경관이 두누다일러서집에돌려보냇더니 한사십오분쯤잇다가집에가서 벤또를싸서허리에차고와서「나는 류치장에들어갈각오를하고 밥까지싸가지고왓다」하고 경관에게 대들므로곳 폭행취체로 그의숙원한때정신상래의 소원이나마 소원성취를하여주엇다는 년센스 일막이동서에 열니엇다

各地金銀商連絡
金塊七十萬圓密輸
鍾路署에檢擧되엿든十數名
裕泰號主等近日送局

그동안종로서고등계에서검거취조중이든 금괴밀수사건은 취조가끗낫슴으로 관계자로 본적평양부아청리 (平壤府衙廳里) 사십사번지 현주개성부지정(開城府池町) 오백팔십오번지지룡수(池龍洙)(二四)씨를비롯하야시내화천정 (和泉町) 칠십삼번지고병완(高丙琬)(三四)명화당 (明和堂) 주인 홍순명(洪淳明) 유태호(裕泰號)주인김종택(金鍾澤) 지룡수의 누의동생 지춘자 (池春子) 등십삼명은이욱고금명간검사국으로송치하리라한다 이번사건 에는경성내의 큰금은상은거의관계하야 그들은 표면상점간판을걸고 뒤로는 각지금방에 사람을 보내여사게금괴를사서는 지룡수 고병완등국경왕래에 능난한금은『뿌로—카—』를 파결탁하야 대규모로안동현(安東縣)봉천(奉天)방면에 금괴를 밀수한것으로 지금까지 판로된것은 작년말까지의 범행인데취조한결과 나타난밀수액은 칠십만원가량에 달한다고한다

外國映畵上演
年次로縮少할方針
금년중은사분지삼이내로
映畵統制實施內容

긔보=구월일일부터 실시 되는 영화통제의 내용을보면 상영하는 영화의 종류수량과영사시간의제한표준 흥행의영화의 인정과 그강제상영의방법 영화의 수이출과 상영등의수속에 관한 세측등이잇는데그중요한사항은다음과갓다

一、상영영화의 종류의 제한에 대하야 외국산영화는 일개월을통하야 한흥행장에서 그상영영화의총메돌수의사분지삼이내로하고 남어지 사분지일이상은 조선또는 일본내지산영화를 상영하되 이것은십년도분이고 십일년에는이분지일 십이년에는삼분지이 이상을 상영하여야한다

一、상영시간제한에대하야상영시간과 수량은 흥행장에잇서서는 원측으로 종래와가치도지사의 취체대로하고 흥행장외에서는 대체오후열시반 까지로한정한다

一、공익영화의인정은사회교화의 목적으로제작된 영화로서 시사 풍경학술산업등에 관한 영화는특수한 취급을하며 강제상영을식힌다

一、영화의상영수이출등의수속

一、영화의 상영수의 계출에대하여서도 각항의 주의가잇다

主人돈竊盜하고
逃走든小店員

시내립정정(笠井町)일백오십오번지 잡화상리영근 (李榮根)의 상점에점원으로잇든성락만 (成樂萬)=假名)(一八)은지난십일일오전한시에주인이잠자는 틈을타잇는돈을다서금고안에너허두엇든금구십원을 훔처가지고 도주하다가수일전에 경의선 수색(水色) 정거장에서 그곳 주재소순사에게 붓잡혀서 방금서대문경찰서에서 취조중이다

運動競技

中等、專門
籠球大會
九月十二日부터

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의第十回全鮮中等校 第六回專門校南籠球大會는 來九月十二日부터 十五日까지繼續擧行될터이라는데參加希望校는 九月八日까지 中等校는二圓 專門校는參圓의 參加金을添附하야京城鍾路中央基督教青年會體育部로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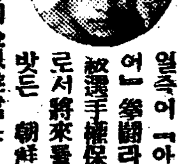
京城對奉天水上對抗

京城水上競技聯盟에서는 來十九日京城풀에서 來十九日午後一時 全奉天水泳選手一行을招聘하야 第五回全京城對奉天水上對抗競技會를 京城풀에서 開催하기로되엿다한다

基青柔道部員
石鎭慶四段에
日本武德會서發表

YMCA柔道部員 石鎭慶君(三三)은 日本武德會本部로부터 柔道四段으로 昇段하엿다는喜報스러운發表가 잇섯다 同君은일즉이 鍾路YMCA柔道部에서 柔道를修練하다가 京都同志社大學專門部에入學한後、同校柔道部의重堅으로 活躍中인데、君은 지난八月一日부터八日까지 日本武德會主催로 京都武德殿에서 열린 第四回夏期武道講習會에 參加하야 柔道에對한 學科、理論、實際等의講習을마치고 考査試合을行한바、拔群의成績으로 柔道四段에昇段하엿다 그리고、同講習會에朝鮮出身으로서의 參加는 同君이嚆矢라한다

拳鬪界의花形選手
金恩壓歸京
『영그·알데』와對戰



일즉이「아마츄어」拳鬪라이트級選手權保持者로서將來를囑望밧든 朝鮮拳鬪倶樂部出身의金恩壓君은 昨秋九月에 職業選手로轉向한以來 東京에서 日本의强豪들을相對로 二十戰十六勝二無勝負二敗의 快績을남기고 今十五日突然歸京하야 本社運動部를來訪하엿다 君은京城에 約一個月間滯在豫定이라하며 來九月初旬에 比人選手『영그·알데』君을마저 京城에서對戰할터이라는데 『알데』君은 얼마전 金正福君을이긴猛者로서 金恩壓對『영그·알데』의一戰은 在京拳鬪聯의人氣를 이끌것으로期待된다 (寫眞은 金恩壓君)

甲子園中等野球
海南5 神戶0

【電通大阪十五日發】 甲子園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三日=第一次不戰一勝者戰海南中學對神戶一中戰은十五日午前八時五十九分부터海南先攻으로 開始 結局五對〇으로 海南中二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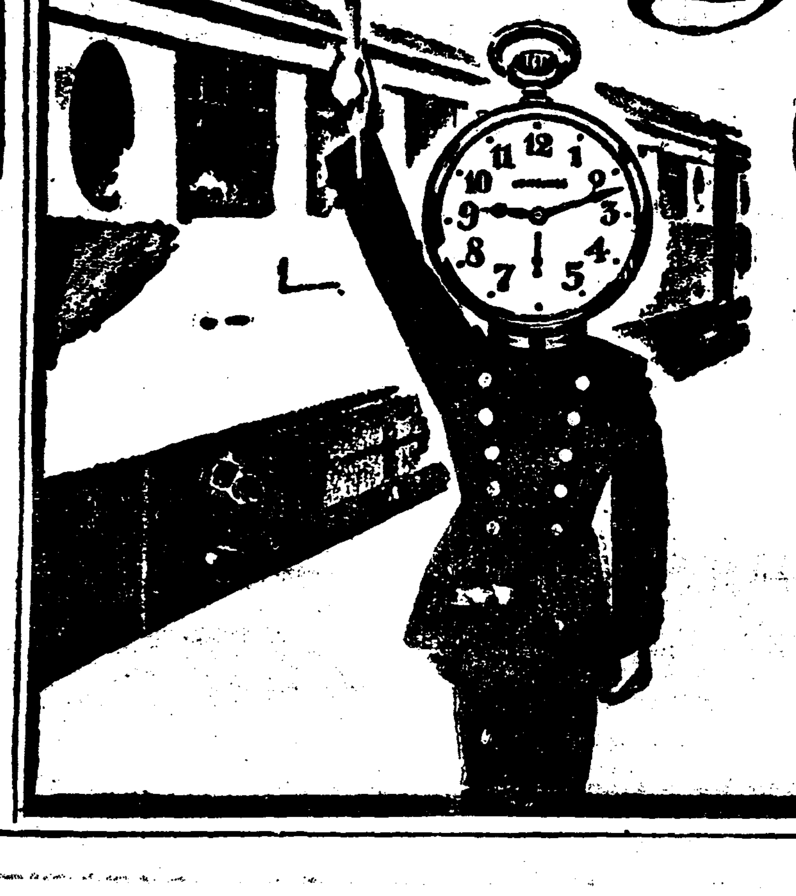
天氣豫報
曇

高氣壓은日本東海上에서 日本海를거처 朝鮮에파자고잇스나 그熱力은弱하고 黃海側은氣壓의配置가 不安定하고 黃海中部에는弱한低氣壓이잇다全朝鮮은一般으로호리고昨日은處處에 소낙비가잇섯다 明日은호리기쉽다

昨日最高 二二度一

今日正午 二六度

釜山 薄照 大邱 晴天 群山 曇天 木浦 曇天 仁川 同 京城 同 元山 雨 城津 同 鎭南浦 曇天 新義州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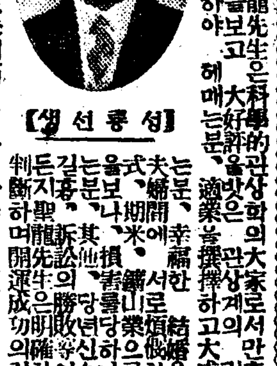


外金剛神溪寺境內
甘泉庭前
甘泉旅館
特히修養客을歡迎함

恩給
長期短期低利
立替商會細密京
城府恩洞一六〇
鄭商會

◉地方에게신분은생년월일과要件을자세히적으시고로금을付送하시면곳자세히회답해드립니다、(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함)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만흔대사가들의관상을보고大好評을받은 前途方針에對하야 헤매는분、適業을選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 結婚을바라는분 夫婦間의 幸福、期米、鑛山、 式을보나 業으로큰利益을보는분、其他損害를당하나 길흉、訴訟의勝敗、年身數 判斷은聖龍先生의 明確하여 平生의 運成功의길을 보게 一 問題를 … 判斷하여開運의길을보여주니 今時에 觀相을보시고운수가 틔는 好機를 놋치지마시요 料金은普通觀相壹圓이오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京城相學院

말더듬이
重難한訥言도全治함
矯正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通洞一四九番地
訥言專門矯正院

廣告
大同郡林原面淸岩里山六五ノ四
墳墓 拾基
大同郡林原面淸岩里山六五ノ五
墳墓 壹基
右墳墓는無緣墳墓로서改葬許可를願出中이오니所有者又는管理者는昭和十年一月二十四日까지에大同警察署에屆出이업스면擔當者로서許可를得하야改葬할것으로함
昭和九年七月二十五日
土地所有者 黃朋成

無汚、無痛하고皮膚內깁피滲透하야빨리잘낫는
不汚不痛
잘듯는 皮膚チャージ
音부스럼、옴、진물、버짐、땀떼、근질근질한全身的皮膚病모기、벼룩、빈대、毒虫의害、근질근질한곳에한번試用後宣傳을願하오、小瓶三十錢、中五十錢、大壹圓全身用德用五圓也
本家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番 (各地有名藥店販賣)

文藝篇

夏期藝術講座(中)

外國文學硏究序論

우리는왜外國文學에關心해야하나 (三)

異河潤

國民文學이란 그씨워진國語나 그쓴國民만을基準으로하야規定할수잇슬가 매우『멜리케』이드는한 問題가아니면 아니다 決코一定或은 特定의國語로나 또는特定의國民間에서 쓴文學의全體를 다

【國】 民文學이라고 말하기는어렵나 거기에는 그國民의特性과 生活方法과 歷史的運動이 보혀야하며 또時文의發達과 意義의特質間에 直接的關聯의成立이 必然한條件으로서 거기에存在해잇지아니하면 아니된다

따라서文學이 그國民性에多大한影響을주고잇다는것도 생각할수가잇다「니ー체」의 말을빌녀올것도업시 「호메로스」의詩는 古代希臘의國民性을 涵養함이만햇슬것이오 『단테』업시는

【伊】 太利의 國民性을 또한생각할수업슬만하다하겟다 國民文學이 그한國民의 文學이어야된는「쉑스피ー어」의 모든作品이 「쉑스피ー어」의 文學이되는것과마찬가지로 그人格의必然的表現이되어야할것이다

그러하야 우리는作品의素材만을가지고國民文學을 規定할수도업는것이니그것을消化、攝取한에잇서서 그國民의精神이 一貫하고잇느냐 업느냐하는데關鍵이가잇다 即그것이果然國民精神의

【所】 産이냐 아니냐하는데잇는것이라고하겟다 다시말하면 國民文學이란 그國民이엇더한意味로서든지 여긔에關與하고잇는文學을말한다 그럼으로 國民的關心이 거기要求되는것은 勿然한일이거니와 그러타고 淺薄한政治的意味를 조곰이라도包含하는것은 決코아니다

그런까닭에 그國民의理解與否를勿論하고 그것이그國民精神의所産인때에는 임이國民文學의範疇에들어가는것이며 素材를 外國어듸서取해왓거나그消化攝取에

【精】 神의國民性을볼수잇스면 亦是이를國民文學에넣을수잇슬것이다 그리고高一本質的으로 國民的이아닌사람의作品이라도 그것이그國民의愛賞을바드며 또는그詩가그國民의民謠로서 불녀지게까지되엿다면 그것도 不可不國民文學의範疇를附與하지안흘수업는일이다 여기에우리가萬一 英語를使用하야 우리에게서 그題材를求한作品을썻다고하면 이것은 어느文學에屬할까하는 問題에逢着하지안을수업다 또

【獨】 逸語로쓴 獨逸文人의作品은 반다시獨逸國民文學이라고 讀稱할수잇겟느냐하는것도 問題가아니될수업스리라고본다

中國의書豪 楊草仙書會 十五日부터

中國書家楊草仙氏(九六)는 今般漫遊次로 朝鮮에왓다가 左記와가티 書會를開催하게되얏는데 收入金은 附朝鮮水害救濟段에充當하리라고한다 氏는 中國四川省出生으로書道에天稟을가지고잇서 幼時로부터書慣與素를 踏襲하야다고하며 더욱 得意로하는草書는篆隸分楷에出發하야 西漢의古渾 北魏의遒勁、晉唐의楷華를集成하야一家를일운터로 氏의中國書道界의地位는 大端히놉흔것이라고한다

(現在市內黃金町三丁目 中島旅館에留宿)

一、開催場所 三越五階
二、同日時 自月十五日至月十七日三日間
三、席上揮毫 正午부터午後一時半 午後四時부터同五時
四、揮毫料 全紙金三十圓 尺八金二十圓 尺五金十五圓 半折金十圓

八月十五日(水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塔속의公主 金福鎭 ◇同六時五五分 家庭講座 慈善과同情(三)金泰洽 ◇同八時 夏期特別講座 器樂의鑑賞法(三) 朴慶浩 ◇同八時三〇分 時調와俗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遊山歌 三、執杖歌 四、달거리 張香蘭 孫瓊蘭 ◇同九時 流行歌 一、仙鄕 二、港口의女子 三、不忘曲 四、봄江 五、梨園哀曲 六、新江南 七、봄은薔薇 高福壽 崔江西香 伴奏오케·때밀리·유ー직 ◇同九時三一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奚琴池龍九 大笒方龍鉉 鋼笛李日善 杖鼓韓成俊

八月十六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 一、봉사노래 二、바닷가 三、봉사꽃(獨唱)四、연필한자루 五、구름(獨唱)六、백일홍 七、자장가(獨唱) 八、물새 九、피리부는아이(獨唱) 十、햇빗은쨍쨍 妙洞幼年主日學校 伴奏李興順 指揮高在天 ◇同六時五五分 家庭講座 慈善과同情(三) 金泰洽 ◇同八時 夏期特別講座(其二) 器樂의鑑賞法(四) 朴慶浩 ◇同八時三〇分 傳說 七夕과乞巧 尹白南 ◇同九時 歌詞와時調 一、白鷗詞 二、平時調 三、中擧時調 申花仙 長鼓金一宇 嵇錦拔 大笒金永根 ◇同九時三一分 伽倻琴並唱과散調 一、並唱 (一)短歌달거리 (ㄴ)廣寒樓歌 二、散調 金宗基 鼓手 沈龍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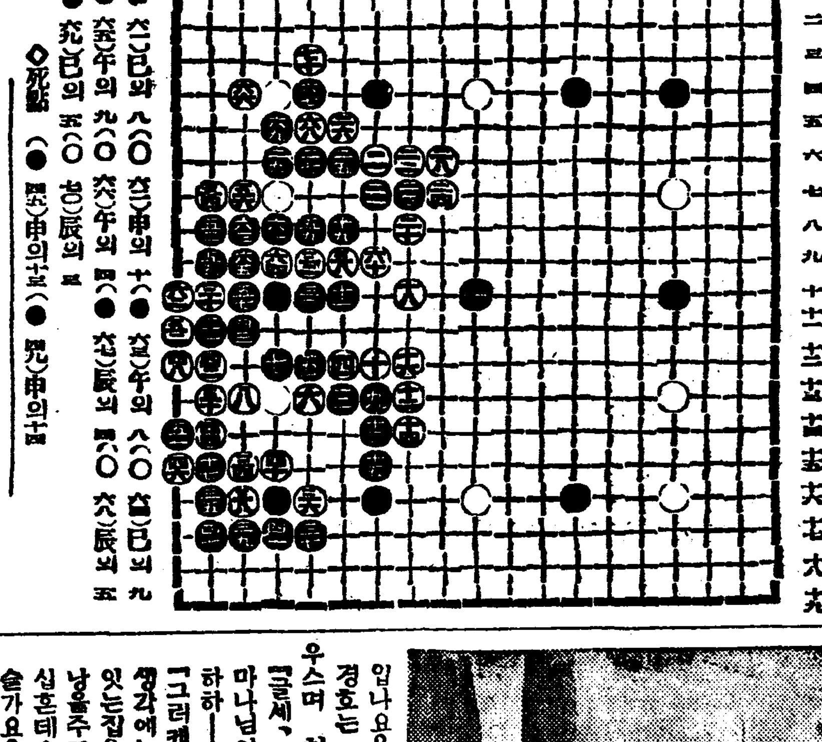
八月十七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꼼파山도야지 金南柱 ◇同六時五五分 家庭講座 慈善과同情(四) 金泰洽 ◇同八時 夏期特別講座(其二) 器樂의鑑賞法(五) 梨花女專敎授 朴慶浩 ◇同八時三〇分 俗謠 一、關山戎馬 二、愁心歌와엮음 三、긴아리 四、打鈴 張鶴仙 ◇同八時五五分 (大) 洋樂 一、첼로協奏曲 산사ー느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알레그렛트·논모ー토 第三樂章 운포코메노ー알레그로 二、輪舞 A.安東 作曲 타라데라 [illegible] 指揮 요세프라스카 ◇同九時三一分 連續古談 [illegible]

◇本社主催◇ 國手選拔 圍碁對局譜{七}

白 盧史楚 黑 丁奎春

時符 ‖ 一(百△○二百●三百)



(●六一)巳와八(○六二)申의十(●六三)午의八(○六四)巳의九 (●六五)午의九(○六六)午의四(●六七)辰의四(○六八)辰의五 (●六九)巳의五(○七〇)辰의五

◇死點 (●四五)申의十四(●四九)申의十四

◇蔡國文氏評曰‖白이 耳角을 保守도하려니와 黑防禦도할겸 午의四로 退着하매 黑이 辰의四로 挾追하야 白을中斷하니 엇더한 變端이 또 出現할는지

對米關係五十年史

修好前의米國態度 (25)

湖岩

提督을招請한內幕

【提】 督의志望을 못되고 또그說明을 드른李鴻章은 韓美通商條約을 締結함에 關하야自己가 中間에서 斡旋할터이니이뜻으로도 美國政府에 報告하라고하엿다 이때 提督은 이友誼的行動에 對하야 中堂에게 致謝하고 이러한好意는 米國政府에서도 感謝히 생각하리라고 言明하엿다 그러나 李中堂이 提督을招請한 眞意는韓米修交外에도 海軍敎鍊에 잇섯든것을 알어야 하겟다 그當時俄國의 南下에 對하야一種疑懼心을 가지게된 中國人은 特히去秋以來 海蔘港에 集束한 俄國兵艦으로해서 非常한 脅威를 늣겻슴으로 『슈펠트』가튼 海軍界의將官을 마저다가 海戰의對策을 하며

【海】 軍의組織까지 꾀하려한것은 그理由를 알고보면 반드시 놀랄바 아니다 『슈펠트』提督의李鴻章과會見한 記錄中에 이런一節이잇스니 그다음에 閣下가 나에게말하되 나를天津으로 招請한目的은 中國海岸에서 淸俄間의 海戰이 생긴다면 그結果가 어떠케 될것인지 어느 미들수잇는 海軍將官의 意見을 聽取코저함이라 하엿다 (下略)

이로보면 李鴻章는 切迫하야진 淸俄關係에 對하야 早晩戰爭까지 覺悟한바이잇섯든模樣인데 그네는이兩國의 危機를 國際的立場에서 觀察한 討議를하엿스며 그討議中에는東方妥衝인

【朝】 鮮도 자주 問題에 올으내리게 되엇다 李鴻章이 光緖六年九月初四日(一八八〇年十月)付로淸國皇帝께 上疏한 文中에 이때『슈펠트』의 말을 引證한 一節이잇스니

…六月間 有美國水師總兵薛佛爾 赴朝鮮 議約被拒 旋來津與臣會晤 據稱… 但俄人已發巨餉 遣將調兵 勢必不肯中止 若不圖中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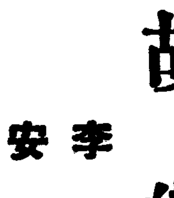
【韓】 米條約에 對하야 最善의活動을 한술로 自任하엿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 을 …… 하는마음으로 一朝米國에 도라갓다 一八八〇年十一月八日에 桑港에 到着하엿고 同月某日에 華盛頓에到着하엿는데 그의意見에는이로부터 朝鮮開放은韓淸兩國政府의 努力如何에依할뿐이라고 생각하엿다 그럼으로

……무슨手段으로든지 그닷친大門을 열지고中央政府(朝鮮을指稱譯者註)에 交涉할方法만 어드면 나는 確實히보기를 米國으로、通商에關한것뿐이 아니라 그鄰邦

露人이 大兵을움직임에 中國을 떼하지 아니하면 朝鮮을상잖을 저어한다고 하는提督의말은 반드시自己의 어떠目的을 達하기爲하야 說한 一時的威嚇만으로 볼수업다 어제든지 李鴻章見은 一貫에相照하야 서로돕기로굿게約束하고 特히『슈펠트』는

朝鮮의開放을 世界에 促進하고 朝鮮을 開放시킬수잇을 안다고 하엿다 그는朝鮮이 將來에 東方國際風雲의 일어날때 반드시그渦中에 들어갈것을 豫想하야 이러한말을 하엿다

【日】 淸俄兩國의 戰爭이 잇슬때朝鮮이 戰場될것은 事實이요 어떤나라끼리 서로敵이되든지 이三國사이에 반드시 衝突이 잇슬것이다 그는 어데까지든지 朝鮮을西方各國에 開放하려는 志望을 이저버리지 아니하엿스며 中國海軍組織에 그事業로서 하야달라든 李鴻章의 付托도 이저버리지 아니하엿다그리하야 그는中國海軍組織에 李를補佐할目的을 爲하야서와 李의助力에 依하야 朝鮮과條約을 締結하기 爲하야 自己를中國으로 派送하도록 華盛頓政府當局에 運動하야 마침내 成功을 보게되엇다。



故鄉 (223)

李箕永 作
安夕影 畵

갈등(葛藤) 三

「그러나 하긴그러케 해야겟는데、무슨 두서가잇서야지요。—두호라비가 밥을 엇더케하고、옷을엇더케 빨려입나요?」

경호는 난처한듯이 빙그레우스며 희준이를 처다본다。

「글세、넘세나 엇어드리지만— 마나님이나 젊으시다면 하하—」

「그러케는 할수도업고……제생각에는 밧이나、두서너개잇는집을사서、문깐방은 행낭을주고、밥을좀 해달나고 십흔데요……그러케는될수업슬가요?」

「웨업서、행낭을두면 의레히 밥해주고、빨내해주고、물기러대는것인데—」

「그럼、그런집한채를 나는대로 듯보아주시겟서요?」

「어듸로?」

「저는 읍내서는 살기 실혀요、그러나、회사가너무머러도 단이기에 불편할터이닛가、읍근방으로 구햇스면 조켓습니다。그리고、행랑을사려줄사람까지……」

경호는 그런청을 하기불안한 모양으로 낫빗을붉힌다。

「그런사람이야、얼마든지 잇겟지。—집업는 사람이 무수하닛가。」

「그런집한채를 사자면 얼마나 될가요? 적어도、방셋은、잇서야겟는데요。」

「그건 집나름이 겟지! 웬만하면 돈백원이나 줘야될걸!」

경호는 한거름 다가안지며

「논마지기나 따른집을 그만돈으로 살수잇슬까요?—아버님도 노시는니 농사라도 지시게하엿스면 조켓는데요。」

「잘하면 살수잇겟지。그러나 백원식이나 하묵 돈이 될수잇겟소?」

「네、그것은 사장에게 사정말을하면 돌녀줄것가태요。제가 긔구한운명으로 커낫다고 매우 동정하는 모양이닛가요……」

「경호군은 본시 착실하닛가 회사에서도 물론 신임을할수잇겟지— 아니 그럼 행낭을둘것이아니라 장가를들지그래— 。아버지께서도걱정을 하실게요 누님이나 보시기할걸……」

하고 희준이는 다시 정겹게웃는다。

「아직 장가야 들수 잇서요 먹을것도업는데……」

「무얼、행낭치다거리를하기로하면 장가를드려도 넉넉하겟지—솟당에、상건의빨내를해도 밥뒤궁치가 헐다고 남을 거저식힐수는 업슬터이닛가……」

「그야 그럿습죠마는……」

하고、경호는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아직은 결혼할생각이 업슬뿐아니라、또 약혼한데도잇고해서……」

「응、약혼한데가잇서—난그런줄은 몰녓지!」

「……」

「색시는 어듸사는데?」

희준이는 바시갑자기두엇다가 별떼아려나며 호기심이 나는 것처럼、긴장한목소리로 뭇는다。

「저하고 가티잇서요」

「가티잇다니?여직공이여?」

「네! 선생님도 잘아시는갑숙이여요!」

하고、경호는 다시한번 씩— 웃는다。

「아、갑숙이!……나 누구라구……」

희준이는 갑숙이란말에 은근히 놀내엿다。그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는、경호의약혼하엿다는 여자는、자긔가아주모르는 어느딴데사는 여자처럼—생각되엿섯다。그런데、그가바로 갑숙이라니、그것은도모지 뜻박게일이안인가?그러나 그와동시에、희준이는 자긔의、둔감(鈍感)을 놀내엿다。갑숙이와경호는 벌서 오래전부터련애관계를 맷고 잇섯든 것이안인가?비록한때는 서로조치못한 파탄(破綻)이 생겻다하드래도、그들이 한회사안에서다시만난이상에는、과거의 끈첫든 인연을、새로 이여갈것은 정한일이 안인가?……

그러나 그순간 희준이는자긔도 모르는 이상한 감정이무럭무럭 올녀다。그는 내색을 하지안으랴도 마치 질투와가튼 야릇한감정을 아니늑길수업섯다。그래그는 별안간침울해서 가만이안젓다。경호는 그눈치를채고、무언중에、승리의 쾌감을 늑기엿다……

금시로그는 우월감을가지고、여태까지 희준이압헤서 처들지못하든 고개를 번쩍 들엇다。

「참 이젓군요、옥희(갑숙이가、도라오는 휴일날에、선생님을좀 만나뵈고십다든데요——」

「나를?어듸로요!」

「그날아침에 제게로 오시면 안내해드리겟습니다」

「그러지。그럼 네、열시쯤엿서 가지……」

희준이는、표면으로는、아모러치안케심상히 대답햇스나 마음속으로는、궁금한생각과아울너여전히 야릇한마음이、종시사라지지안엇다。

오	늘	이	칠	석	날

織女孃 銀河건너 牽牛郞맛나는날

눈물은 흘러 비가 되고…

오늘이 칠석(七夕)입니다 오늘밤에는저 아름다운좋은 칠실에서 만일년만에어년 련인(戀年戀人)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반가이만나서 지나간한해동안의 설고슯든이야기、가슴에 사모친련모의정을 마음것 이야기할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부부생활에는 크나큰제한이 잇습니다 그리케 반가이 만난그들이 거만날이 새기도전에 못손을노코 리별하지안이치 못할애닯운 운명을 가지고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때에울고 리별할때에울고하야 그야말로 눈물로 맛낫다가눈물로 헤여지는것입니다 오늘의오는비는 그들의눈물이니 보통때의비와는달습니다

왜그들은 일년에 단한번、그것도 눈물로맛고 눈물로 리별하는 괴이하고 애닯을 운명의 소유자이엿든가 녯날 녯날 한녯날에 옥황상제께서 따님 한분을 가지고잇섯드랍니다 그딸이 하도착하고 얌전하야 날마다직조에 하도애를 쓰고잇기에 조곰이라도 위로할량으로 그아부지가사위감을 물색햇습니다 물색하고 물색하야 사위를맛고보니 젊은두내외는 밤낫을가리지안이하고이야기하기에 세월을보내고잇슴으로 하늘에는(自然界)대이상이생겻드랍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께서는그것을 대단이 념려하야그딸을 다시불러올리고 일년에 꼭한번식 칠월칠석에만 만나도록한것입니다

신부직녀와 신랑견우가 일년에단한번、그것도 단맷시간밧게는 만나지못하는리유는여기에잇는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이저서는안될것은 까막까치의공로입니다 이날이면온천하의까막까치는 모다하늘로몰려가서 신랑과신부사이에 가로노여잇는 은하(銀河)에다 다리를 놋습니다 잠간이나마 견우와직녀가만나는것은 가막까치의 공입니다

傳說의由來

이야기는 그러나 한개의전설이니 이제 이전설이 생겨난유래를 잠간소개하겟습니다 이사상은 역시약참천년전중국주(周)나라때에 생긴것입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이 칠월칠석이면 당시 그사람들의 바루머리우에와잇섯습니다 천지와자연을 숭배하는당시사람들에게는 은하에대하야 지금사람으로는 맛볼수업는 이상한느김을 가지게되얏습니다 그래서사람의운명이 별의지배를밧는다는생각을가지고잇든그들은 다시그두개의별에대하야 이야기를 맨들어내지안이하고는 못배엿든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학이기도 햇습니다 얼마전까지도 중국뿐만안이라 전동양에서 이날이면 문인들이 칠석을두고 시도지코술도마시고한것은모두그까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하량쪽에잇는 이두개의 이상한별이 언제나서로 처다볼뿐이고 한테모아오지못하는것이 유감이엿든것입니다 그래서 엇더케이 두별이만날수업슬까 확실이견우와직녀는 만나고십허할것이라고 다 이러케생각하든남아에 원시농민들은 드듸여 이두별을 사람으로 보게되얏습니다 때마츰 공중에 놉히떤까치를 보고 이것이 다리를노아견우와직녀를 만나게하는것이라고생각하게되야 오늘과가튼 전설을낸것입니다

望遠鏡으로본 그들의密會

‖萬度의熱에타고잇다‖

이 우에서는 이전설의유래를간단히 소개하얏거니와 이제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보건대를 간단이 소개해보겟습니다 직녀성은 천문학상취좌(鷲座)의『알라』이고 직녀성은 금좌(琴座)의『알라』입니다 직녀성은 망원경으로보면 견우성은 지구보다도 크고 직녀성은 지구의 두배보다도큰별입니다 그런데 견우성은 만도(萬度) 직녀성도 일만일천도의 놉흔열로타고잇습니다 두별의 거리는 십륙광년(十六光年)이니—지금당신한테갑니다—하고도 십륙년후가안이면 만날수업습니다 다음은 은하인데 이것은망원경으로보면 무수히만흔별들이한데모아잇는것입니다 그리고그위지도 견우와직녀보다는훨신터먼곳에잇스며 우리의육안으로는다만 희게흐르는장물처럼보이는것입니다

異說『銀河水畔』

牽牛『남들가튼번 벌서고손자도보앗겟소머리에힌털이나도임변에한번이러케맛나야된단말이요 차라리저은하에빠저죽읍시다』

織女『죽으면 이러케도맛날테니 우리술적도망갈까?』

이런지업마후에는그들의그림자는은하수가에서차자볼수업섯다

어느때만흔가 幼兒의危期

어머니들께警告!

동경(東京)모사회단체에서 최근 오개년간의 일본아동사망률을 조사해보앗는데 그결과는다음과갓습니다 우리가정에도 참고재료가되겟기에 독자에게 소개합니다

出産한지五日以內	四四、二八九名
五日以上十日未滿	二四、三一六名
十日以上十五日未滿	一六、一八六名
十五日以上一個月未滿	二七、一七三名
一個月以上二個月未滿	三四、六五三名
二個月以上三個月未滿	二三、六九四名
三個月以上六個月未滿	四四、二九〇名
六個月以上一個年未滿	六八、六七一名

표를보면 알수잇거니와 지금순서를따라서 적어보면

六個月以上一個年未滿
三—六個月
五日以內
一個月以上二個月未滿
十五日以上一個月未滿
五日以上十日未滿
二個月以上三個月未滿
十日以上十五日未滿

의순서입니다

림 질
淋疾

新發賣 普及藥 一円九〇

治療者의福音

從來의治淋劑에求할수업는、治療經過의早期良轉及治療期間의短縮이特徵이오게다가使用이極히簡易便利한本劑를아직實驗못하신淋病者의簡易한試療에서보시라고特히廉價인試藥品을提供하야널리本劑의性能効果의眞價를認識케합니다。

治療界의權威 局所銀製劑의完成

獨逸슈타인、알렌천博士의學說

獨逸의碩學슈타인博士(Stein)、알렌천博士(Valentine)는內服藥에關한論文中『白檀油를始한內服藥을連用하는患者의尿中에는淋菌의繁殖을防止할힘이업다』고斷言하고、다시現代臨床家는『에ー텔油、膠狀劑에는殺菌力이全無하고單히鎭痛、分泌制限、利尿作用을가질수에不過한다』고極言하얏다。게다가腎臟胃腸障害를隨伴하며도慢性移行의機를주는內服藥其他에失望하고現代醫學界에서淋疾은適切한局所銀劑에依한治療가가장良好하다고하게되엿다。

前東京吉原遊廓吉原病院長佐藤榮先生이發明創製하신本劑는製造至難하다는可溶性의히치오-ㄹ의製造를完成하야此에定評이잇는콜로이드銀을配合한理想的局所劑이다。따러서淋疾治療의가장重要한點인淋菌殺菌消炎三作用의綜合効果가잇고도殺菌力이强해서適確하게奏効하야慢性으로移行함을豫防하는것이다。本劑는局所患部의直接治療藥이어서他內服洗滌座藥等에比하야効果가優秀한故로症狀의早期良轉에依하야驅毒하며治療期間을短縮한다。一般洗滌藥의缺點인藥液과함께淋毒을後部尿道로送入하야危險한副睾丸炎、攝護腺炎等을併發할念慮가업고도이것을豫防함은本劑의가장特長으로하는바이다。

ブラオギン 부라오긴

ケンゴール 겐곤ー루

注意—急性、慢性症에適宜、婦人用에適宜、藥價는다同一하지만藥液中原液의含有量其他에相違가잇스니注文時에明記하시옵

藥價 二〇瓦入(約十回分) 五〇瓦入(約二十五回分) 八〇瓦入(約五十回分)

全國藥店에서販賣 (文獻無代進呈)

京城·新井藥房 本村藥房 釜山·大黑南海堂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一九四三番 電話三田一一六八五、一一六八六

KS-16

三南水害義捐金品

現金累計 一萬七千七百三圓七十九錢
物品累計 五萬二千五百三十二點

同友貯蓄會 一金二十圓也

內譯
金亨奎 一圓 安文出 五十錢 金學述 五十錢 洪學善 一圓 朴泳洙 五十錢 裵雲龍 五十錢 金圭獸 一圓 弘重都雄 一圓 李海舜 五十錢 金月仙 一圓 李鎬成 五十錢 朴喜貞 五十錢 李命相 五十錢 金象鎬 五十錢 金泰獸 五十錢 保科商店 五十錢
宇野商店 五十錢 趙鍾輝 五十錢 徐錫井 五十錢 金華獸 一圓 金駿鎬 五十錢 萬年龜 五十錢 具貴岩 五十錢 張洪植 五十錢 郭文鎬 五十錢 鄭厦基 五十錢 金秉翊 一圓 姜四奉 五十錢 黃英秀 五十錢 崔鍾奭 五十錢 李鍾鳳 五十錢 申命宅 五十錢 崔氏夫人 五十錢

東京市本所區向島一丁目三 東京共和會員一同 一金五十七圓七十四錢

內譯
洪殷植 金在洙 李秉鎬 李守憲 金成憲 洪溫植 金福基 鄭濟三
洪昌鶴 金俊鎬 李宗奉 金文鎬 洪承蘭 青又煥 洪震植 韓壽天 金興錄
鄭明會 李載斗 洪連植 洪桂植 羅燾俊 羅順均 韓奉五
李啓鳳 鄭漢基 李司憲 李啓錫 羅明云 丁斗玉 柳在彬
以上諸氏洗濯石鹼行商收益金全部

端川邑朝市場 一金二圓

內譯
黃玉蟾 十五錢 李春實 二十錢 李吉善 二十錢 崔昌松 三十錢 全永浩 十錢
許尙文 二十錢 金弼龍 十錢 趙龍元 二十錢 黃應順 二十錢 黃河允 三十七錢 李華漸 十五錢

本社雄基支局經由分 一金十三圓二十二錢

內譯
金鴻九 二圓 金淳九 二圓 崔周煥 一圓 鄭鳳儀 一圓 金利順 一圓 朝鮮冷麵屋 一圓 雄基고무商會 五十錢 愼記號 五十錢 李銓哲 五十錢
咸興冷麵屋 五十錢 元山冷麵屋 五十錢 大昌理髮館 五十錢 唯一洋服店 五十錢 金宗夏 五十錢 朴承禹 三十錢 安興淑 三十錢 鄭承鎬 三十錢 元義商店 二十錢 康德星 二十錢

本社永同支局經由分 一金二圓七十三錢(送料除後)

內譯
蜂峴里夜學一同 一圓十錢 宋在復 三十錢 孫連澤 十錢 金根培 十錢 韓貞禮 十錢 梁泰鎬 十錢 高昌薰 十錢
朴世昌 十錢 朴漢用 十錢 孫錫珍 十錢 朴東 十錢 金相換 十錢 朴喜贊 十錢 朴炳基 十錢 朴甲成 十錢 朴泰京 十錢

本社永興支局經由分 一金二十八圓五十一錢

內譯
金四圓三十一錢 永興支局主催同情劇收入金
德田 一圓 禹仁治 五圓 天野樂器店 二圓 趙秉夏 一圓 張東勳 一圓
李基順 五十錢 井後關治 三十錢 李錫龍 二十錢 金永鎬 二十錢 嚴龍得 二十錢
三山商會 二十錢 崔膺柱 二十錢 李龍雨 二十錢 李奎鉉 二十錢 李秉浩 十五錢 薛赫東 十五錢 鄭奉周 十錢 金昌熙 十錢 成秉七 十錢 鄭仁秋 十錢 金振浩 十錢 李在春 十錢
金潤郁 十錢 朴宗權 十錢 李東震 十錢 韓東烈 十錢 金成學 十錢 韓義源 十錢 朴禎國 十錢 金學鮮 十錢 朴寅弼 十錢 鄭泰甲 十錢 山下任造 十錢 姜明洙 十圓

本社新市支局經由分 一金八圓四十二錢(送料除後)

內譯
李興一 二十錢 李昌淳 十錢 金禮錫 十錢 崔碩贇 十錢 金秉溢 二十錢 新安醫院出張所 一圓
洪在根 三十錢 李富田 二十錢 許應善 二十錢 金元甫 五十錢 洪國甫 二十錢 崔孝甸 十錢 文利周 十錢 李玉順 五十錢 金大植 三十錢 崔義文 十錢 朴俊成 十錢 崔亨俊 二十錢
李德化 十錢 金俊彥 十錢 吳龍吉 二十錢 朴鳳魯 三十錢 金永彬 二十錢 [illegible]章鎬 二十錢 裵淳一 十錢 崔龍俊 二十錢 崔源汝 二十錢 崔亨坤 二十錢 劉鎭浩 二十錢 白世庸 五十錢 金麗水 二十錢 韓鳳景 二十錢 金光麟 二十錢 鄭基善 二十錢 許元浩 三十錢 金元柱 二十錢 白元錫 十錢 李贇洙 十錢

橫須賀市中里飛地三四六 金昌漢徐永大募集分 一金四十二圓五錢

內譯
深田町 金應千 一圓 佐野町 朴在允 一圓 山崎町 鄭太永 一圓 逸見町 金濟哲 一圓 浦鄉町 金本仙吉 一圓 鉈切町 大村傳吉 一圓 佐野町 朴判壽 五十錢 深田町 尹道伊 五十錢 安浦町 朴聖熙 五十錢 安浦町 李熙龍 五十錢 浦鄉町 徐智善 五十錢 佐野町 鄭錫琪 五十錢 深田町 金貞杓 五十錢 不入斗町 朴在業 五十錢 公鄉町 成俊伊 五十錢 長浦町 金相晃 五十錢 吉倉町 崔子化 五十錢 鉈切町 朱壽甲 五十錢 田浦町 鈴木榮吉 五十錢 浦鄉町 島村朝吉 五十錢 浦鄉町 平田仙吉 五十錢 吉倉町 張正甲 五十錢 不入斗町 李奉伊 三十錢 山崎町 金武出 三十錢 山崎町 魯一判 三十錢 堀ノ內 青萬述 三十錢 深田町 朴壽虎 三十錢 山崎町 金敬律 三十錢 不入斗町 金用雲 三十錢 不入斗町 朴達根 三十錢 逸見町 林允信 三十錢 不入斗町 朴義祥 二十錢 堀ノ內 金益善 二十錢 山崎町 朴乙龍 二十錢 山崎町 金鍾雲 二十錢 法塔 金學用 二十錢 上町 金元植 二十錢 堀ノ內 李相濟 二十錢 山崎町 金元善 二十錢 池上 李壬時 二十錢
池上 具明壽 二十錢 堀ノ內 金富文 二十錢 深田町 李季萬 二十錢 安浦町 禹俊伊 二十錢 佐野町 朴桂愛 二十錢 中里町 金大得 二十錢 安浦町 李熙應 二十錢 池上町 李成五 二十錢 浦鄉町 大谷雄都 二十錢 中里 尹且範 二十錢 中里 南石鳳 二十錢 中里 裵再凡 二十錢 中里 崔文明 二十錢 中里 李鍾龍 二十錢 中里 李明俊 二十錢 不入斗町 田善皓 二十錢 佐野町 金丁學 二十錢 不入斗町 金基福 二十錢 中里 鄭判錫 二十錢 中里 李鐵星 二十錢 佐野町 村田淸吉 二十錢 不入斗町 金月石 二十錢 佐野町 金本淸吉 二十錢 逸見 山本 二十錢 長浦 安順中 二十錢 逸見町 朴本 二十錢 逸見町 中村 二十錢 逸見町 金田 二十錢 逸見町 木村 二十錢 逸見町 岩本 二十錢 逸見町 德島 二十錢 浦鄉町 橋本金一郎 二十錢 浦鄉町 坂本金一 二十錢 浦鄉町 大川文吉 二十錢 浦鄉町 菊野萬之助 廿錢 浦鄉町 木下幸一 二十錢 長浦町 文田判 二十錢 佐野町 李鍾叅 十錢 佐野町 李承班 十錢 公鄉町 大倉金一 十錢
公鄉町 韓成洛 十錢 公鄉町 北村一郎 十錢 公鄉町 李大允 十錢 公鄉町 山崎金市 十錢 公鄉町 金本仙吉 十錢 公鄉町 木村傳吉 十錢 公鄉町 金名季 十錢 公鄉町 竹內文太郎 十五錢 山崎町 朴本 十錢 公鄉町 徐老人 十錢 佐野町 李鎭三 十錢 山崎町 千洪準 十錢 山崎町 金龍守 十錢 佐野町 金鳳述 十錢 公鄉町 關山花吉 十錢 佐野町 朴洙得 十錢 公鄉町 大島一郎 十錢 佐野町 朴福岩 十錢 佐野町 金泰源 十錢 長浦町 柳一郎 十錢 長浦町 岡田康次郎 十五錢 長浦町 高田淸吉 十錢 長浦町 木利長吉 十錢 長浦町 松山政夫 十錢 長浦町 藤本藤吉 十錢 舟越町 豊田佐造 十錢 舟越町 文永洙 十錢 舟越町 朴尙福 十錢 舟越町 朴在福 十錢 舟越町 石川仙吉 十錢 舟越町 金山 十錢 舟越町 伊澤 十錢 舟越町 申元 十錢 舟越町 松島仙吉 十五錢 舟越町 山口 十錢 長浦町 山本文吉 十錢 長浦町 三谷淸吉 十錢 長浦町 淸水秀吉 十錢 不入斗町 黃春植 十錢 不入斗町 鹽田太郎 十錢 安浦町 辛尙玉 十錢 安浦町 李昌根 十錢 安浦町 趙鳳植 十錢 安浦町 金廣濟 十錢
安浦町 崔龍伊 十錢 佐野町 朱龍出 十五錢 堀ノ內 金貴文 十錢 不入斗町 橋本長太郎 十錢 山崎町 青山 十五錢 山崎町 三井 十錢 不入斗町 金學奉 十錢 深田町 李太仁 十錢 深田町 權丙喆 十錢 深田町 張石岩 十錢 深田町 張石角 十錢 山崎 金鳳龍 十錢 公鄉町 金子春吉 十錢 公鄉町 鄭奇鎬 十錢 公鄉町 全務用 十錢 公鄉町 山下文吉 十錢 公鄉町 權三喆 十錢 公鄉町 安田松市 十錢 長浦町 吉村政一 十錢 長浦町 三田長吉 十錢 長浦町 木村一郎 十錢 山崎町 金成伊 十錢 山崎町 朴壽萬 十錢 山崎町 金同務 二十錢 山崎町 朴尙守 二十錢 堀ノ內 鈴木 二十錢 安浦町 李午出 二十錢 山崎町 李在鮮 二十錢 池上町 高橋 二十錢 中里 村本 二十錢 佐野町 黃鍾範 三十錢 公鄉町 朴柱俊 三十錢 不入斗町 花田花吉 卅錢 山崎町 島田 三十錢 逸見町 李振年 五十錢 山崎町 朴尙石 五十錢 田浦町 朴太化 五十錢 安浦町 金剛商店店員一同 一圓 安浦町 金己出 二圓 中里町 橫須賀鮮人團體 二圓
寄附金募集運動費負擔 徐永大
小雜費負擔 金昌漢

本社江華支局經由分 一金二十圓二十錢

內譯
金正植 三十錢 李東承 二圓 吳仙姬 一圓五十錢 孔昭顔 二十錢 白玉贇 二圓 金正憲 二圓 金淵和 三十錢 許潤 三十錢 朴昌恩 五十錢 千世煜 二十錢 朴殷周 十錢 李大鳳 三十錢
鄭憲瓚 五十錢 江華産業組合員一同 黃祐天 三圓 金平默 一圓 成逸錫 一圓 金守龍 一圓 黃祐泳 一圓 千洪俊 一圓 李輔商 五十錢 兪平濬 五十錢 尹重鉉 五十錢 劉世增 五十錢

上往十里斗井洞民一同 金二十圓四十錢 衣百三十三點

內譯
張漢甲 二十錢 李今成 五十錢 鄭濟承 三十錢 李日燮 十錢 金富成 二十錢 洪順男 十錢 徐熙淳 二十錢 李京植 二十錢 韓武順 五十錢 李鍾龜 十錢 尹利鳳 二十錢 金千孫 二十錢 崔三同 五十錢 崔氏山 十錢 柳時雨 二十錢 崔興泰 十錢 金敎雲 十錢 李範晙 一圓 文興乭 二十錢
金巨福 十錢 朴長祿 十錢 尹相淩 五十錢 李蘅薰 五十錢 方龍彩 五十錢 宋今孫 十錢 李景成 一圓 鄭銀成 二十錢 金斗鉉 一圓 尹根植 二十錢 宋鴻範 五十錢 徐敬煥 五十錢 崔興順 五十錢 鄭龍雲 五十錢 李正鉉 五十錢 金興春 十錢 金基完 十錢 方順奉 二十錢 趙東根 二十錢
李炳烈 二十錢 金桂煥 十錢 朴聖根 十錢 李弼九 二十錢 韓三山 五十錢 元容燁 五十錢 李桓宰 三十錢 洪俊泳 二十錢 李麟烈 五圓 崔相奎 四十錢 方春奉 十錢 韓春植 五十錢 鄭聖來 五點 洪明順 二點 申昌福 六點 韓云石 五點 文昌福 四點 卓聖文 六點 鄭業分 一點 李復男 二點 宋廷顯 四點 全日雷 六點 金元植 五點 李興植 一點 姜龍夏 一點 許点山 一點
李善英 二點 鄭濟鎭 一點 金應奎 三點 金元浩 一點 盧允泰 三點 朴鳳雲 九點 裵學奉 二點 李奉石 五點 林應均 二點 金順明 三點 全聖洙 七點 宋鴻範 三點 徐敬煥 三點 鄭順根 二點 洪光玉 三點 金基錫 六點 金仲必 一點 宋淑貞 六點 趙實培 六點 方英培 二點 金桂煥 一點 金点山 四點 張永信 二點 李承益 米一升 李興石 米一升 李麟烈 七點
千桂駿 二十錢 李泰山 五十錢 白圭福 五十錢 黃基鉉 二十錢 崔性吾 十錢 李成實 二十錢 安昌浩 二十錢 安氏 五錢三點 李長成 十錢 李寬玉 五十錢 李允載 五十錢 張世哲 二圓 李錫駿 五十錢 李泰雲 三十錢 任完淳 五十錢 姜鎭秀 一點 朴學珠 二點 姜興告 二點 權丙翊 五點 陳在淳 四點 金榮來 四點 金應洙 六點 金一鶴石 尹晦根 鍮一箱 李麒煥 九點 金甘術 五點 韓氏 二點 梁壽福 一點 崔龍甲 一點 姜龍甫 四點 李興善 三點 閔成大 十七點 金点同 二點 徐漢俊 十九點 成周人 二點 洪長城 十三點 金東善 三點 金環洙 十點 張壽永 三點 柳海明 四點 朴元伯 六點 康英學 三點 安承學 六點
徐順泳 一點 無名氏 二點 姜興植 七點 申籌男 四點 趙鏞障 十一點 金榮哲 二點 安壽萬 一點 李尙烈 二點 姜龍甫 二點 梁仁泰 二點 安鍾鎬 一點 金順東 三點 金德熙 九點 姜有成 十六點 金昌福 六點 嚴千福 九點 趙先興 十四點 安善玉 五點 趙一景 七點 韓應順 米五合 徐商憲 米二升 尹今奉 米五合 柳張熙 米三升 陳順天 米一升 尹興宅 米五合 嚴道奉 米五合 朴永三 米五合
梁完俊 米一升五合 梁學文 米五合 李德順 米一升 張相雲 米一升 李仁熙 米一升 丁順泰 米五升 金洪申 米二升 金容善 米一升 徐銀山 米三升 延碩熙 米二升 陳千興 米一升 康昌乭 米一升 吳錦山 米一升 金祥雲 米一合 張桂遠 米一升 趙炳鎬 米四升 朴建洪 米一升 安喆鎬 米一升 金淳文 米一升 李秉泰 米一升 李順燁 米一升 崔達成 米一升 孫昌奎 米一升二點 李順一 米七合一點 成祥運 米一升二點 張貴奉 米一升八點 金錫同 米二升三點

鷺梁津復興振興會 一金四十五圓二十四錢 衣類六百二十三點 白米五斗

內譯
李漢龍 十錢 金桂福 十錢 史俊玉 十錢 洪鍾植 四十錢 金貞淑 一圓 安合秀 五十錢 金在文 十錢 姜明奉 十錢十三點 洪斗杓 十錢 咸順一 二十錢 黃小萬 二十錢 李聖龍 三十錢 池貞順 二十錢 兪德龍 十錢 孫貴吉 十錢一點 李昌植 一圓 李福伊 五十錢 李六俊 一圓 洪順喆 二十錢 張相玉 十錢一點 金三龍 二十錢一點 裵仁善 十錢 成億萬 二十錢 金鍾甲 五十錢 金聖文 十錢 李順七 十錢 徐桂有 十錢 李小山 十錢 林應潤 三十錢 金龍雲 二十錢 盧龍九 十錢一點 朴允達 二十錢 李順允 二十錢 李康顯 三圓 安得順 三十錢 李元萬 二十錢 李基奉 十錢 金鍾浩 三十錢 金得順 十錢 李範世 二十錢 鄭永浚 五十錢 張斗三 三十錢三點 金基仁 五十錢 李奉俊 三十錢 安三萬 三十錢 高巨福 二十錢 金炳祀 三十錢二點 趙壽同 十五錢 代書 李承萬 五十錢 閔永鎭百貨店 一圓二十六點 趙仁綠商店 五十錢十八點
慶昌商會 一圓二十三點 德盛園 五十錢 崔萬千 五十錢 金壽同 十錢 李光三 二十錢 李敬鎬 二十錢 李根山 十錢 康弘民 十錢 李在弘 十錢 金得千 十錢 郭振點 十錢 李銀在 十錢 張仁煥 五十錢三點 閔在斗 十錢 金敬萬 五十錢 車圭鴻 一圓 金基男 十錢 文德潤 十錢 趙敬祥 五十錢 李英圭 一圓 朴喜順 二十錢 李愚燮 五十錢 李春植 二圓 馬相宗 二圓 金成煥 二十錢 金福同 三十錢 韓三童 二十錢 安点學 五十錢 崔仁秀 二圓 梁周源 三十錢 郭基沃 三十錢 呂興山 五十錢 金孝星 二十錢 李興成 二十錢 千元福 十錢 金桂龍 十錢 黃東哲 十錢 金鳳浩 五十錢 金乭奉 二十錢 洪心圓 五十錢 孔鳳順 五十錢 趙彩玉 十錢 金淑子 二十錢 安壽同 五十錢 成基元 十錢 宋雲星 十錢一點 千俊學 一圓 徐廷玉 五十錢 姜景熙 二十錢六點 朴福奇 一圓 裵光烈 三十錢 申文成 二十錢
柳海明 四點 朴元伯 六點 康英學 三點 安承學 六點 李來豊 一點 宋康鎬 六點 金淑子 二點 閔允大 七點 李秉權 三點 金龍雲 九點 段道恒 十三點 張小英 十九點 嚴今鳳 十點 柳興雲 一點 金光洙 二點 方相集 六點 申漢順 四點 崔元基 二點 李明善 二點 羅千潤 二點 李明西 三點 李敬旭 六點 吳相俊 七點 金上萬 六點 申龍成 八點 金茸星 九點 金東植 十一點 全貴連 十二點 宋奉浩 三點 河姓女 四點 金得綠 三點 金得洪 二十二點 宋明浩 十點 鄭自斤龍 四點 朴元鎬 八點 李順奉 二點 金石實 四點 金聖文 十三點 林寬浩 四點 徐榮琦 五點 李明哲 五點 申業用 六點 李相雲 五點 田元吉 四點

本社木浦支局經由分 一金七十三圓二十錢

內譯
金熙烈 二圓 郭瑩達 一圓 李寅鎔 一圓 崔明鎭 五十錢 金石植 五十錢 金雨鍾 三十錢 金鑄變 三十錢 吳天爽 三十錢 郎光坤 三十錢 李容子 三十錢 梁啓煥 三十錢
以上木浦東亞婦人商會支店員一同

一圓 五圓 三圓 五圓 五圓 五圓 五圓 二圓 一圓 五十錢 二圓 一圓 五十錢 一圓 一圓 二圓
德興食堂 問屋組合 籾摺業同志會 禹亨年 朴萬[illegible] 金炫祚 梁萬守 金聲浩 尹明龍 朴玉述 羅允煥 金聲振 金在植 올리빗子 金有基

木浦鮮人飮食店組合 二圓 朝日食堂 二圓 大田食堂 一圓 金光樓 一圓 崔俊元 一圓 金太心 三十錢 鄭守南 三十錢 鄭贊林 三十錢 文在玉 三十錢 盧成龍 五十錢 韓仁洙 五十錢 朴福連 五十錢 張俊一 五十錢 成卜順 五十錢 李亨奎 五十錢 金德明 五十錢 申三洙 二十錢 金商鈴 二十錢 朴点德 二十錢 羅光善 二十錢 金德福 二十錢 金順女 二十錢 金福任 二十錢 朴俊陽 二十錢

崔順奉 十錢 李連心 十錢 朴季卿 十錢 裵季洙 十錢 沈相千 十錢 金汝生 十錢 宋九禮 十錢 金鳳南 十錢
金光樓 洪君子 五十五錢
朝日食堂 梁白淳 一圓五錢 姜明玉 四十五錢 李桂花 四十五錢 尹蓮花 四十五錢
大和館 趙山玉 三十五錢 韓春子 三十五錢 金順德 三十五錢 金英愛 三十五錢
大田食堂 金桂仙 二十五錢 申彩鳳 二十五錢 林錦珠 二十五錢
木浦飮食店組合
以下各五錢: 金明花 姜香花 李錦花 李玉順 丁貞淑 柳紅桃 宋春子 安蓮花 朴明月 程玉葉 朴春花 李榮香 李春子 李弄仙 朴明月 蘇山玉 金春紅 金禮順 金順愛 朴明月 朴順愛 李順愛 鄭明月 金鳳花 趙錦純 韓順禮 金二順 朴蓮花 裵錦仙 姜今順 高英淳 金花子 丁明心 秋暎月 金錦珠 尹永愛 鄭香心 明竹心 鄭山月 林松子 李蓮心 張蓮花 薛南順 趙玉子 黃順愛 梁錦仙 鄭香葉 鄭錦珠 朴福禮 黃已順 權貞子 田玉葉 李山月 金錦珠 尹蓮花 朴蓮順 金梨花 沈明子

以下各五錢: 金松竹 鄭彬鳳 金弄珠 鄭春紅 金瓊子 金錦順 金錦玉 鄭錦順 姜珊紅 張桃花 朴海月 金明月 崔春禮 金明子 李月月 金英仙 鄭順子 白金禮 尹錦順 李貞玉 韓福順 鄭山順 裵彩玉 文一玉 崔山心 暎玉 春福仙 鄭福順 趙吉子 申春花 金錦仙 李蓮香 朴錦順 高明月 金春子 劉必順 金月仙 羅桃花 金一女 金蓮玉 李明月 金基露 金弄珠 金奇順 劉錦玉 崔禮順 朴福德 金福順 鄭春花 金玉奇 魯香草 金小香 李錦花 鄭山玉 朴順愛 申順愛 李金玉 崔蓮花 朴今善 金秋月 韓彩玉 崔錦珠 金玉順 朴致彥
閔元植 二十錢 張仁德 二十錢 朴瑢圭 二十錢 李濯奎 二十錢 李卜七 二十錢 李在凡 二十錢 鞠翠舘 三圓
아리랑
以下各三十錢: 菊子 히바리 松子 白合子 쓰바기 子로리라 芳子 瑪利亞 雪子 久子

金錢小計 三百三十三圓七十一錢
物品小計 七百五十七點

水災에우는同胞에 幅湊하는同情의涙

兩勞働婦人團의 눈물겨운同情 本報支局에寄託

【陝川】 금번삼남수재리재민을구제함에 다못얼마라도 도움이 되게하기위하야 풍수야외로동부인단에서는몰피풍우하고푼푼이 저축하여오든 정남리야외로동부인단(井南里野外勞働婦人團)에서 금일원사십전을약소하나마 만분지의 의문이라도하여달라고 눈물겨운 동정금을 십삼일에 본보지국으로 귀탁하여왓다

許金爾+美擧

【陝谷】 고양군 지도면 대장리허진(高陽郡知道面大壯里許鎭)씨는 삼남수해리재민을 구제하기 위하야 동리리민에게서 푼푼이 동정을 모집한결과 일금사원삼십전을 본보릉곡지국에 보내엿스며 릉곡김형섭(陵谷金亨燮)씨는고무신십칠켤레를 역시 본지국으로보내엿다

가서 헐것을통하여 제여집로도 발송하겟다하고 돌아갓다한다

配達夫總出로 救濟菓子行商 本報開城支局에서

【開城】 삼남수해리재동포구제운동은 날이갈사록 각방면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맹렬한활동이 전개되는중인데 본사개성지국에서는 십오일부터 배달부총동원으로 구제과자의 행상을 하기로한바과자한봉에십전식이엇다

血汗으로짜낸 女給들의同情

【全州】 삼남일대를휩쓸어내지안코 인수한에대한 구조의 현이 끗처지안코 뒤로 계속되여 떠거운 동정이 쏫주하는이지음 전주에잇는 음식점 카페 청향까지 울여주엇다 시내에잇는 전주관(全州館)녀급영자, 에자, 우선, 동 세녀자는 지난팔일에 돈오원을 수합하야 본보 전주지국으로 보내엿스며 중국인이 경영하는중흥관(中興館)음식점 녀급최에자외삼사인의녀급들도 일원칠십전을 수합하야 본보전주지국으로 보내엿다

리는데 순익금은 리재동포구제에쓸터이라한다

同胞愛에感激한 金斗遠(男)·外芳志

【元山】 미증유의삼남수해는 수십만 생명을위협하야 그들로하야금 사선에서 방황케하고잇다는 참상을들은 원산부 본정오정목어백구번지 김한길(金漢吉)씨와 장남 김두원(金斗遠)(三)군과 장녀 김형이(金亨伊)(一○)양은 푼푼이 모으든돈 원군일원, 정이양은오십전을 가지고 본보원산지국을 차저와서 이재민에게 전달하야 달라고 하엿는데 거짓업는 천진한어린 그들의 동족애에서!이 인유에서발로된의연이야 말로부자의 의천만금보다나흔정재(淨財)의 동정금이라한다

新里教會에서 新製衣七十點 本報支局에寄託

【平壤】 삼남수해동포구제열은 측일고조되고 잇거니와평양부내 신리조선긔독교 감리회신리교회(新里教會)에서는의복칠십점을 만드러가지고 십일일본사 평양지국에 차저와서재해지에 보내달나고 부탁하엿슴으로 즉시 발송하엿다

金利龍氏赤誠

【平壤】 평양부내 종로동춘상회(同春商會)김리룡(金利龍)씨도 현금이원을 삼남수재구제금으로 보내주어스므로 본사를동하여 재지

至誠의結晶義捐 江華支局에寄託

【江華】 사선에선동포들의운명을 걱정하는 지성이움직이는곳에 구하고찻는이는 헛되지안타 강화군하점면신봉리(新鳳里)에 거주하는 김현식(金賢植)김정팔(金正八)홍재필(洪在弼)삼씨는삼남지방의 눈물겨운참상을 지상으로알고 뭇족에의 눈물을 금치못하야 솔선하여 의연금품 주머니를 만드러가지고 눈물겨운 의연금품을 동리에서 모집하여가지고 지난십일일 오전열시에 본보강화지국에 우선금십사원사십전을 재지동포에게 보내달라고 과탁하고도라

새옷은못지으나 丹誠을알아주 本報淸州支局에寄託한 눈물의몃가지義捐

【淸州】 『새옷을 못지여보내서 미안하오나 이나마, 한사람의 몸이라도 구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란 淸州沈女史 衣類三點金一圓을보냇는데 이녀사는 몃해전에청주영정에와서 별자본도업시 그야말로 구든결심의결정으로 생활을하야나가며 장남은 고보까지 졸업시키고 도차남까지 고보에 통학케하는 녀인이라한다

院坪光明學院生徒一同 誠金四圓四十九錢

聾公普主日學校生一同 一金七十五錢

우 회원생도들은 학비가업서서 보통학교에도 가지못하는니 어린이들로서 푼푼이모아 이만치 보내게된것은 실로유산자로서 포식란의로 사회에동정이라는 것은 도움관언하는 이로서는 그야말로 상상도못할일이아니면 아닐것이다

普校同窓會義捐

【陽德】 지난오일에양덕공립보통학교 동창회 정긔총회에서 개회벽두에 남선수재 구제금을 거출하기로하야 즉석에서 회장이하 회원일동이 거출한바 십팔원오십전을 본보 양덕지국경유 전달을 의뢰하엿다

七人酌婦의同情

【海南】 백만장자로서도아직 수재동포에게 밥한줌주기를 앗기는이때 한몸에천여원식의 채금에묵기여 자유를일흔 작부의몸으로 수재동포를위하야 동정금을냇다는것이 얼마나 묘한대조일가! 전남해남읍(海南邑)영산관(榮山館)작부들은일시는기생으로서 자유이든몸이 엿스나 그들은 시달이고시달이여 한몸에천여원식의 채금을지고 작부로써저주할 못남성에게 유린을당하야 인정의측감조차 둔하여진그들은 오로지동포애에서울고뜨거운 인정에서 소사난의연금을일곱사람이 오십전 혹은이십전으로 삼원이십전을 모아본사해남지국에의뢰하여왓다

南浦公市場基地 高價買收問題

府民의非難聲高調

【鎭南浦】 긔보=진남포곳설시장긔지로형무소압 김긔만(金基萬)씨의수전 륙천일백사십팔평을 매수한바 그토지가격은현시가보다 삼천여원을 더주엇다는데 그원인은 부회의원모씨가부의비밀을 팔로시겻다는것으로 부당국과 모씨에대한비난이항간에 떠돌고잇는일방 엇던혹악이나 업나하야 매우주목중이라는데 그내용은 부에서는룡정시장을매수코저수차시장조합측과교섭하엿스나 가격의차이로교섭은 결렬되고 제이후보지를 비밀회의에서 정하고자주 교섭위원으로조정호(趙定鎬)씨가피선되엿는데 그후조씨가 지주를방문한측벌서 토지중개인이 현시가보다 엄청나게 한평삼원오십전식 예사기로 말하엿다는바 그중개인은 부회의원김래병(金晥柄)씨에게부탁을 바덧다고한다 그러면 김래병씨는 무슨까닭으로 교섭위원이잇슴에도 불구하고 월권으로 현시가보다삼천여원이나 더주고사도록 하엿슬까 이것이일반부민들이 의심하는바이며 또한가지 이상한것은 중개인이 처음계약을맛기는 이만평천사백륙십원에바덧는데 지주측에서 구전을주지안겟다하므로 사백사십원구전을 합하여 이만이천원으로 되엿다하는점이라한다

▲朝倉府尹談 현시가보다 조빗싸다는 말이세간에 잇는듯하나 당국자로서는 그토지까지 매수치못하면후보지엇기는 어려울사정인데 위임을바든 조정호씨는 임체아모보고가업고 의편으로는 이토지를 지금곳치면 살수업다함으로 부득이 급하게 매수한것입니다 비난이만타면 제가개인으로 그토지를바다서 처분이라도 하겟습니다만은 부회의에서 이미승락되엿고 협가에삿다고하니 무슨문제가 잇습니까 김래병씨에게만흔오해를 하신다니 퍽미안한것밧게업습니다운운

▲仲介人盧氏談 세간에서는 부의비밀을알려준 김래병씨와무슨내용이나잇는듯이말하는모양이나아모것도업고내가중개료사백사십원을사는편에가입시켜 먹은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만일천 오백륙십원에매매하기로되여계약서를바든후구전을청한측안준다함으로 하기로 사백사십원을 더하여이만이천원에다시계약서를작성하여바덧슬뿐이고김래병씨와는아모관계가업습니다 운운

▲金晥柄氏談 세간에서 그러케말이잇는 모양입니다 누구보다도 가튼지위에 잇는사람들이 사실을 확실히 알어 보지도 안코 사람을 중상 하는모양이니 딱한 일입니다 그러나 장차흑백이 들어나겟지요 나는 다만비밀회의를 밀하고나 오든 길에 중개인을 걸가에섯맛나그 토지를 얼마면 사겟느냐고물어 본죄밧게는 아모것도업고 부윤이 그러케라도 사러고하기에 사준것입니다 운운

觀衆八千의盛況 三南水災映寫 —九日夜海州에서—

【海州】 금번 본사에서 백퍼센트의 보도의임무를 수행키위하야 만호돌질파정신을 함처서 근래에듬은 삼남지방의 비절참절한현상을 촬영한 삼남수재실황(水害實況)영화회는예정대로 지난구일오후 팔시반부터 해주청년회관 교정에서 개최되엿다 당일에는 폭풍이부는동일뿐아니라 가 폭순함에도 불구하고관중은 무려 팔천여명이나 동원되엿섯는데 정용할수업는 참혹이 화면(畵面)에 재현될때마다 관중으로부터 처참을 늣기는탄식이연하되엿는바 동열시종무사히 폐회되엿다

巨濟農組解消 當局의彈壓과幹部의反動이 —解消의重要原因—

【統營】 거제농민조합(巨濟農民組合)에서는 지난 칠일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와 토의한결과 조합해소에관한건을 토의한결과 조합을해소하기로 결정하엿는바 동조합은 사변전에창립하야 오륙개월동안에 조합원쪽 백여명획득으로 활발한 농민운동을하여 오든바 당국의 탄압과 중요간부의반동으로 운동이 침체상태에이르고 당국의 간섭은 더욱심해감으로 그와가티 해소하기로된것이라한다

水原三市場에서 家畜大市開催 十七、十八、廿三日

【水原】 수원군농회에서는년중행사의하나로 항례에 의한가축대시를 좌긔와가티 개최한다는바 소와도야지가 주장이라하는데 축우와양돈의 증식과개량을 목표로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八月十七日 烏山市
八月十八日 水原城內市
八月廿三日 水原城外市

水害同情音樂 主催、宗教時報支局 後援、本報平壤支局 —廿五日於崇專講堂—

【平壤】 종교시보사(宗教時報社)평양지국에서는본사평양지국후원하에 오는이십오일 오후팔시삼십분부터 숭전강당에서삼남수재동정음악대회를개최키로되여목하준비에분주망이다 어방에는 평양부내의 일류음악단체가 총동원되여 경연을하게되엿고 다년간 해외에서연마를쌋흔 악단제씨의 출연도잇슬터이므로 금년여름 처음보는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忠南庭球大會 優勝은泰安軍에

【瑞山】 여미체육회주최본사서산지국후원의 제일회 충남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일 개최하게되엿든바 당일의준결승 결승전의결과 최후의영관은 태안김조로 도라갓다한다

永靑主催의 南鮮個人庭球 十九日永同에서

【永同】 충북영동읍내에잇는 영동청년회 에서는동회의 년중행사인 남조선개인 정구대회를 오는 십구일을 복하야제이회남조선개인정구대회를 동업 경성일보영동지국과본보영동지국의 후원으로 영동체육회 코-트에서개최하기로하엿다한다

梁山郡下에 凶器强盜出現

【梁山】 경남양산군상북면석계리(上北面石溪里)김상노(金桕魯)의집에강도가침입하야 대소동을 어르켯다는데 사실은지난십이일 오전두시경에 칼을가진두명의 복면강도가 주인김상노가자는방에 침입하야 전등을 비초이며 돈을내라고 위협함으로가진돈사원을빼앗기엇다는데 사실을탐지한소관양산경찰서에서는수사본부를동면주재소에설치하고엄중한경계망을버리고범인수색에필사적활동중이라한다

六十老人自殺 原因은生活難、病苦

【新義州】 지난십이일오전구시경의주군피현면정산동(義州郡批峴面亭山洞)사는김지언(金志彦)(六○)은집안사람들이 업는틈을타서 자긔집뒤人 송림에목을매여 자살한사실이 잇는데그인은 항상생활곤난에 설상가상으로 몹치의악질에 걸리여온갓고치료를 바덧스나 조금도차감이업슴으로 비관자살한것이라한다

電料減下問題로 需用者大會開催

【公州】 루보=충남공주전긔료금감하문제는 최대하야 상번회나상공회(商工會)의감하요구운동을해소하고 전긔수용자(需用者)를총망라하야 전긔료감하운동 긔성동맹을 조직하기로전긔상번회 림시총회에서 긔성동맹 준비위원을 선출하엿든바 전긔 준비위원회에서 전긔수용자에게 일일히가입서를 배부케되여 가지고 오는십육일 오후삼시경에당지본정 공주극장에서 수용자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문제는 이해관계자로 죽선에 나와가장 주목하게되엿다한다

懸賞入選小說 마음의太陽 (七十二)

玄卿駿 作 金熊超 畫

그려운누나 (一)

어느덧 봄이 도라왓다 미술전람회가 열닐때도오라지안엇다 경호의 그림도 거이완성되여가는 어느 따듯한날 승욱이는 마루에 안자 나릿한ㅆ곤에 싸혀 조올고 잇다가갑작히 생각난듯이

「저 경호씨!」

하고 방안을 도라보며 불넛다

「네요?」

「반입일(搬入日)은 저두갓치가요!」

「승욱씨그날은휴일입닛까?」

「휴일이 아니면 하로 놀지요」

「밧주머니를 때울나구요?」

「때우면·맙지 뭐」

「퍽 따듯한데요?」

「아이 엇지도 따듯한지 조으림이 와요」

「어듸 나두 해바라기 좀해볼까?」

하고 경호는 승욱의겻해 가즈런히 안젓다 사실 사지가 녹는듯한 햇볏이엿다

「그런데 엇재서 요새는 인숙이가 오지안을까요?」

하고 승욱이는 경호의 얼굴을 보며물엇나

「글세요 나도 잘 몰우겟는데요」

「저번일때문에 안올까요?」

「뭐 고까짓일에 안올까요? 달니 무슨 일이 잇는거지요」

「그런사람에게 무슨일이 잇겟서요?」

「그런사람에게는 그런사람의 일이 잇지요」

하고 경호는 씩 우섯다

「호호호 그런사람의일은 또 엇던일이에요?」

「그야、나도 몰우지요」

때마춤집으로돌아온 승우는 한목을 갈아입고 볼일이 잇다 하며 도루 나가버렷다

「승우는 무슨일이 이서서 새는 저러케 출입이 자출까요?」

하고 승욱이는 의심을 두며 말하엿다

「글세올시다 요새는 변두 출입이 다사한데요」

경호의 머릿속에는 극장출엽원들의 급료감하문제가 갑작이 떠올낫다 (그러타면 나를 올리우고 일할수는 업는데!) 하고 생각하여 보앗지만 아모리하여도 의심스러웟다 승욱이는 점심을 차리려고 부억으로 나갓다 경호는 혼자안자서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책광고가 난것을 보고 주소를 적어두려고책상우에 잇는필통에서 연필을 꺼내보니 끗이 뭉너젓기에 『나이。 후』를 둘처내려고 승우가 버서노코나간 양복주머니에 손을 너허보니 무엇이 부두러운것이 손에대엿다 무심코 꺼내본 경호는

「아앗」

하며 놀난듯이 쥐엿던것을노아버렷다 그것은 낫익은 손수건이엿다 그것도 인숙이가 늘쓰던! 그리고방바닥에 떠러진 손수건은 제바람에 풀어지며 그속에서는 조곰아한 분홍봉투가 나왓고 것피봉에는 승우의 성명이 적혀잇섯다 글씨도 인숙의 글씨가 확실하엿다 부엌에서 승욱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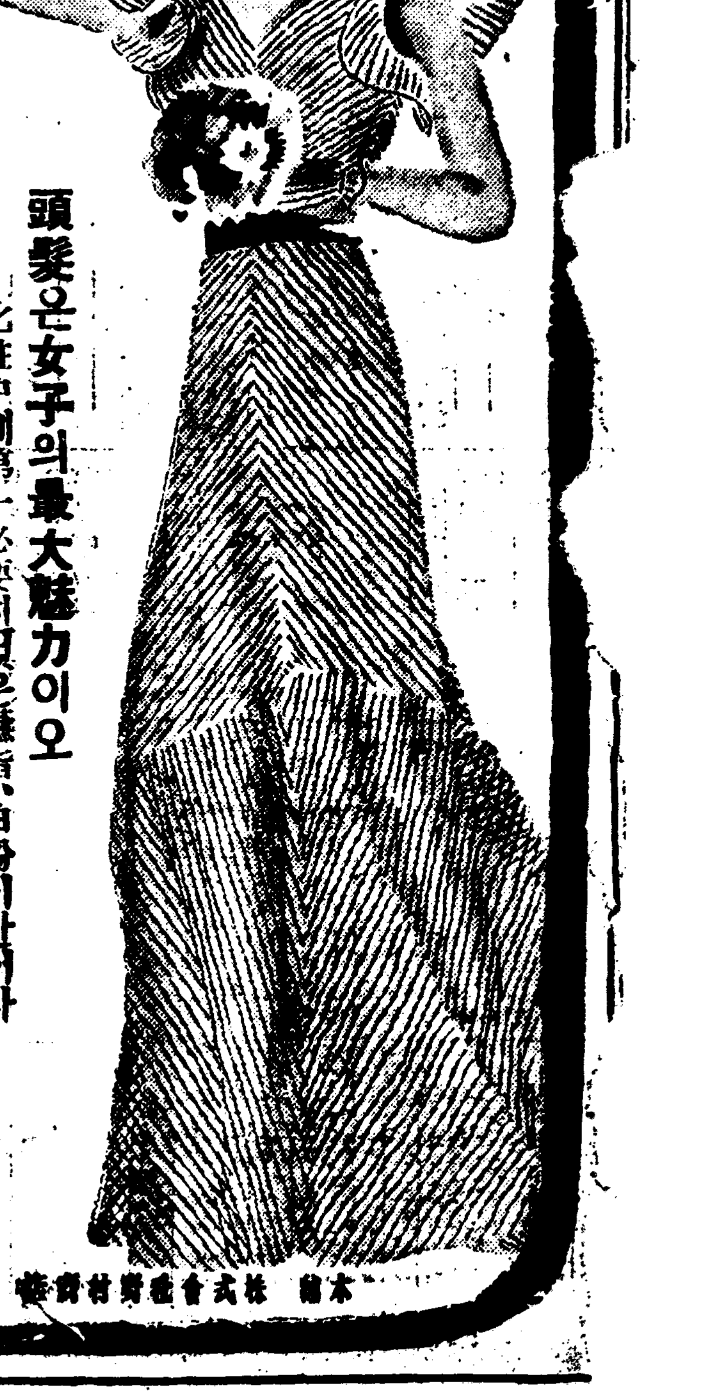
「경호씨 문좀 열어주세요」

하고 불우는바람에 경호는얼는 떠러진것을 집어 치웟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경호는 승우의 손수건과 분홍봉투가마음에 걸녀 얼빠진 사람가티 주머니속에서 나온인숙의 저사가락을 놀니는것을 잇고 하엿다 그모양이 엇지도 이상하엿던지 승욱이가

「무얼 그리 생각허세요?」

「아니요」

하고 목을 지경이엿다 하고 경호는 장에서 저스가락을 다시 옮겻다

金鶴香油 금학향유

頭髮은女子의最大魅力이오 化粧中에第一必要한것은臙脂、白粉이안이어라 美髮이오、豊富하게드른頭髮이爽風에나부기는風情은그림에도比할수업소。
本舖 株式會社寶村商店

秋冬 帽子カタログ進呈 滿鮮向帽子品揃 大阪市北區空心町一丁目 河村善商店 (限店章捺印送呈함)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檢定染料 京城府鍾路二丁目七六番地 染料 都賣 中井洋行 電話光化門一一三〇番 振替京城三八八九番 照會來第商報進呈 地方特約店大募集

림질 功驗迅速한 리베-루 內服數時間後에青色尿가나오며 尿道의淋菌死滅하야放尿와함께排泄됨 그럼으로止膿이되고痛症이速救함 竹村製劑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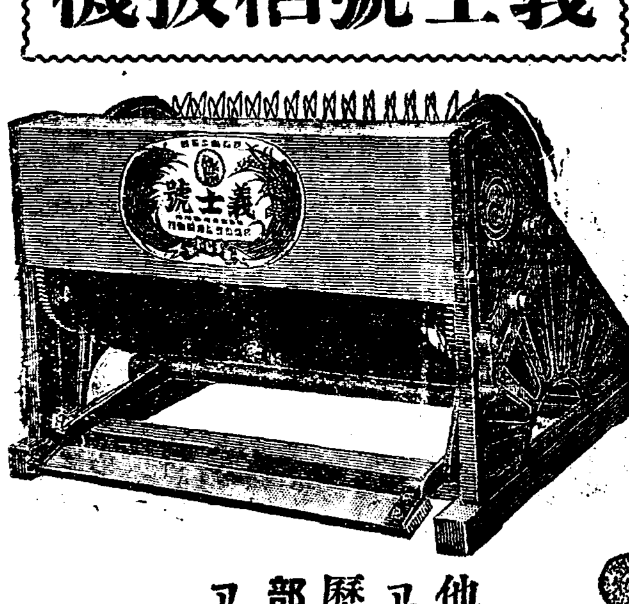
登錄商標 선북거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話光一一五九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포마도 大¥55 小¥33

日本一의産額 日本一의品質 日本第一인 日本一의信用 イカリソース 이카리소스 ◎目下ビスコ景品附特賣中◎ イカリソース三合入一瓶買上마다 酵母菓子 ビスコ 一個式進呈 一、은ソース界의覇王 一、은菓子界의明星 더업는德用的買物??? 只今곳用命을願합니다。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貴愛兒를爲하야 잇지 못할 이藥効 가장큰母의愛와또한가장重한母의責任은育兒名藥의選擇에잇습니다。 그러고이것은大衆의認識과科學의肯定이保證하는樋屋奇應丸을選擇함으로부터育兒의모든問題가解決되는고로、母性愛를滿足식히고母의重責을敢當식히는義務上에、이와가티有力한藥効는決코업슬거이며、救急에際하야서의起死回生、治病方文의總合藥理、保健에就하야서의發育助成、이三大原則이야말로愛育史上에燦然하야、빗나는將來小兒病의根絶을約束하기에充分합니다 主治効能 경풍、감질、현기、기절、보채는데 푸린똥、엇아가는병、감질열、밤에우는데 마마、홍역、낙한아해、체독

「育兒之友」日本文 無代進呈 申請時에는必히新聞名을記入할事 價格 自二十錢至十圓 一錢用包圓 大阪天滿橋 本舖 樋屋合資會社 8-K-3

義士號稻扱機

◎擇하라良品을! 取하라義士號를! 他機의誇張된宣傳에迷惑치마시고『各道農會推獎品』으로오랜歷史와새로운技術을자랑하는河部式義士號稻扱機를躊躇치마시고擇하시요 (特約店募集) 中鮮地方總代理店 京城府南米倉町 若原商店 西北鮮地方總代理店 開城府南本町 松都殖產株式會社

紳士淑女 어린이도 牛乳石鹼 每朝의…… 簡單한洗面이 굉장한 男性美를만든다! No.298 本舖·大阪 共進舍石鹼株式會社

朝鮮、滿洲、中國의 上期經濟界大勢(下)

─於總會席上─ 加藤朝銀總裁述

滿洲 에잇서서는 三月一日에 帝政이 實施되어 國礎가 鞏固되고 治安의 狀態가 漸次良好에 赴한 同時에 經濟工作은 本格的으로 進하야 各種產業部門은 漸次整飭키에 至하얏스나 特產界는 年初以來大豆其他一般農產物의 値下가 甚하얏던 때문에 其出廻가 激減하얏다 四月에 至하야 歐洲向輸出이 多少好轉되엇스나 五月末突然獨逸의 油脂原料輸入禁止令에 依하야 市價再次軟化되고 其前途를 悲觀하얏다。從하야 滿洲國의 今年一月以降五月까지의 大豆、豆粕、豆油의 輸出額이 九千三百萬圓으로 이것을 前年同期間에 比하면 二千九百萬圓의 減少를 告한 狀態이엇다 輸入方面을 보면 綿絲布、雜貨와 如함은 農生物의 市價暴落에 依하야 農民의 購買力을 減殺하고 取引이 대단 萎縮하얏스나 建設諸材料와 機械器具와 如함은 滿洲國의 建設事業進展에 伴하야 繼續하야 輸入이 增加되엇섯다 滿洲事業界의 近狀은 當期中은 特殊의 法令에 基하야 所謂統制會社로서 設立된 것은 石油、炭鑛、採金、棉花、其他關係會社六、資本四千二百七十萬圓이오 統制外에 屬한 所謂自由企業會社로서 新設된 것은 製糖、製粉、其他七社資本二千四百萬圓을 算하얏다。如斯히

滿洲國 의 當期中의 貿易統計에 依하면 輸出은 二億二千七百萬圓、輸入은 二億六千八百萬圓이 되어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出은 一千四百萬圓의 減退를 示하고 輸入은 三千四百萬圓의 增加를 示하얏다。一般金融界는 各方面의 建設工作이 進捗되어 新企業이 勃興되나 其大勢는 依然緩慢狀態를 持續하야 四月에는 滿洲中央銀行의 利下가 잇고 六月에는 日本側銀行預金利下實行이 잇섯다。金融과 密接한 關係가 잇는 滿洲國 康德元年度의 豫算을 보면

歲出入 共히 一億八千八百七十二萬五千圓으로 前年度의 豫算額에 比하면 歲出入各三千九百五十五萬五千圓의 增加이오、其收支狀態는 漸次良好에 赴하는 中이다。要컨대 滿洲의 經濟界는 新國家의 政治機構가 漸次整備되는 同時에 交通은 急激한 發展을 하고 新事業은 各方面에 其振興을 促하야 今後의 發展이 可期이나 最近特產의 農產은 農村의 疲弊에 影響이 甚大함으로써 此間善處가 必要하것다。

中國 에잇서서는 國民政府는 一時剿匪計劃이 잇섯스나 今年一月中央軍의 討伐에 依하야 一敗塗地하고 一方共產軍에 對한 討伐이 其後奏功하야 南京政府의 威信이 恢復되엇스나 軍閥의 不統一과 農村經濟는 依然히 疲弊의 不振에 沈淪하야 貿易金融等은 漸次惡化되엇다 그리고 最近實現된 中國海關輸出入稅의 如한 것은 中國의 對日關係를 去益疎遠케 하는 것으로 思하나 北中國의 通車問題의 解決은 日、滿、中關係의 好轉을 말하고 一方六月末國民政府에 依하야 實施된 關稅改正은 日中關係의 好調를 暗示하야 이에 依하야 彼我經濟提携는 漸次新道에 向하겟고 此機에 잇서 北中方面을 中心으로 한 日中經濟關係의 打開調整을 圖함이 現下急務라고 思惟한다(終)

上半期의 殖銀業

有賀頭取報告

十五日에 열닌 株主總會席上에서 有賀頭取가 演述한 營業概況은 알에와갓다

▲公共及產業貸出=當期中本行에서 取扱高는 七千九百七十四萬餘圓 回收高八千七百三十四萬餘圓이고 期末殘高는 二億五千九百二十八萬餘圓에 達하야 이를 前期末에 比하면 七百六十萬餘圓의 減少에 當한다 그리고 이제 貸出의 種類別로 자치를 보면 共同貸出에 잇서서는 二百七十萬餘圓의 增加를 하얏다 이는 本金融이 大正十五年以降十二個年을 期하고 行하려는 朝鮮產米增殖計劃이 最近米價事情의 變化에 伴하야 新規의 土地改良事業을 不得已中止하게 되어 此方面에 對한 資金의 貸出은 顯著히 減退하얏스나 아즉 前年以來의 [illegible]

正租殘量解除는 今月末? 來月初?

粟輸入增加를 念慮하야 躊躇

九十萬石全部

朝鮮의 正租長期貯藏三百萬石中 第一、二、三次의 正租解除와 南朝鮮浸水로 因한 特別解除를 除하면 그 殘量은 百萬石未滿의 九十萬石인데 그 殘量은 어느때에 解除케 될가함이 目下注目을 끄은다 그런데 이에 對하야 湯村總督府農林局當局者의 意向은 大體 알에와갓다

貯藏의 正租를 조금도 남기지 안코 모두 解除하야 버리면 아즉도 端境期가 二個月半이나 남은 만큼 粟輸入을 막을 方途가 업게 된다 그럼으로 殘量九十萬石을 곳 解除할것이라고 言明키 어렵다 그러나 今後米穀事情의 變化如何에 依하야는 意外로 解除가 빨으게 될는지 모른다

고 解除의 時期에 對하야 말하기를 어듸까지 避한다 그럿치만 某處에서 드른바에 依하면 今月末 或은 九月上旬頃에는 正租貯藏의 殘量九十萬石을 全部解除케 될 모양이라고 한다

長期貯藏不必要

朝鮮稻作은 不良狀態이나 日本內地는 稍不良의 程度

初見의 續低溫怪氣候

湯村農產課長談

今年과 가튼 繼續低溫의 怪氣候는 처음으로 當하며 따라서 이에 對한 經驗이 업슴으로 減收의 程度를 豫測이 거의 不可能한 狀態이다 그러나 朝鮮의 稻作은 平年作以下 적어도 一割五分減은 免키 어려울 것으로 凶作은 거의 確實하다

×

그러나 日本內地의 稻作은 平年作에서 五分減收豫想의 程度에 不過함으로 多少不良인 모양이다

×

農相의 意向이 米價動搖의 値幅을 五圓으로 縮少케 하랴는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잇스나 아마도 事實이 아닐것으로 생각한다

어떠튼지 朝鮮에 잇서서 今秋부터 昨年과 가튼 正租長期貯藏의 必要가 업게 된 것도 確實하고 오직 正租短期貯藏의 方法만으로 足케 될 것으로 생각한다

臨時議會의 召集을 內迫

政友會의 單獨으로

【東京電話商通】 政友會는 政府가 米穀對策에 關한 第六十五議會의 院議를 尊重치 안코 目下의 米價高로써 臨時議會召集의 必要가 업다고 하는 것은 不穩當하다 또 窮襲對策은 全國民의 要望에 依하야 生產制限策을 改良을 빨리 實施할 必要를 痛感함으로 마약 民政黨이 八月末까지 贊成의 意를 表示치 안흐면 政友會單獨으로 政府에 臨時議會召集을 [illegible]하라는 意向이 잇다

私鐵買收

明年도 不可能

總督府의 豫算編成方針과 中央政府의 公債政策과에 依하야 朝鮮內私鐵의 買收는 明年度도 不可能한이 거의 確實하야젓다 趣財務局에서는 明年度의 公債發行額을 中央政府의 緊縮政策에 順應하야 前年同樣 二千九百四十萬圓程度에 그칠 [illegible]이고 따라 上치 안코 依然 補助資五百萬圓을 計上할 意向임으로 私鐵의 買收는 明年度도 不可能할것이라고 한다

殖銀米資減少

八月十日現在

殖產銀行八月十日現在米穀資金融通總額은 一千九百二萬二千圓으로 七月末現在에 比하야 百九萬三千圓의 減額인데 各種別은 알에와갓다(單位千圓)

	長期	短期
農倉	二一五一	一〇六
米倉	六八二	六八
野積	六一三八	九四七
合計	八九七一	一一二一

殖銀定期總會

理事에는 野田氏 監事菊地氏當選

朝鮮殖產銀行第三十二期株主定期總會는 十五日 午前十時부터 同行會議室에서 열고 아레와가튼 利益金處分案(年九分配當)을 可決하고 理事及監事의 補缺改選은 有賀頭取의 指命에 一任한 結果 理事一名補缺候補者로 野田新吾、追間房太郞의 兩氏를 推薦하고 監事一名補缺은 菊池大德氏 同原非造氏의 改選은 重任으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理事候補는 即時 總督府에 申達의 手續을 取하엿는데 今明日中 野田新吾氏의 任命이 잇슬터이다

南朝鮮水害耕地에 財務局減免稅方針

目下總金額二十萬圓豫想

總督府財務局에서는 南朝鮮의 水害를 蒙한 耕地에 對하야서는 被害程度에 應하야 減免稅를 行할 方針으로 關係稅務監督局에 命하야 減免할 要額을 調査中인 바 大邱監督局의 報告에 依하면 同局管內만으로도 約十六萬圓에 達할 모양이며 光州及京城管內를 合하면 적어도 二十萬圓을 不下할 豫想이라 한다 이것을 前年의 大邱管內七萬九千六百二十七圓 光州管內六千三百二圓 京城 一千五十圓 計八萬七千八十圓에 比하면 約十五割의 增加로 今年의 水害에 依한 耕地被害가 如何히 激甚하얏던지를 想像하고 잇다

日蘭會商은 突然進展難

未晒綿布輸入制限

【電通바타비아十四日發】 陶磁器問題、海運問題를 妥協이 不遠하다고 보는 이때에 突然未晒綿布의 輸入制限問題가 생겨 日本代表部도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만약 有制限令이 發令되면 그 影響이 甚大할것임으로 日本代表部는 어떠케 할수가 업게 되야 會議의 進展이 全然斷絕에 빠질것으로 觀測된다

【電通바타비아十四日發】 蘭印代表갈데렌氏는 越出總領事를 訪問하야 未晒綿布最近의 輸入統計를 示하고 아즉도 豫想의 輸入이 激增될것을 指摘하야 이 狀態를 바로잡지 안흐면 未晒綿布의 輸入制限을 發布할는지도 모른다

고 日本代表部의 注意를 喚起하엿다 日本代表部에서도 未晒綿布의 豫想輸入增加를 認함으로 政府에 對하야 그 旨를 報告하는 同時에 輸出統制促進을 要請하얏다

米日爲替市況

【經濟十四日發聯合】 十四日의 米日爲替는 賣三十弗二十三仙 買三十弗十九仙

滿洲에서 朝鮮에 流入 三十九萬五千圓

◇…겨우 一個月間에

滿洲國의 出現以來 朝鮮과 滿洲國間의 經濟的結合은 더욱 그度를 加하는 터인데 그 一表現으로 朝鮮滿洲間의 郵便爲替取組狀況은 增大할 뿐이다 지난 七月은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 滿洲國向郵便爲替의 振出金額은 三十五萬三千七百七十圓으로 滿洲에서 朝鮮에 보내인 振替金額七十四萬八千七百八十圓을 빼이면 三十九萬五千十圓이 겨우 一個月間에 滿洲에서 朝鮮에 流入한 것으로 前年同期의 取組高에 比하야 朝鮮에서 滿洲에 一割八分 滿洲에서 朝鮮에 一割三分으로 모두 增加하엿다

朝銀의 諸償却

六百五十萬圓

朝鮮銀行에서는 今年上半期決算에 六百五十萬九千圓의 諸償却을 하엿는데 그 內容은 알에와갓다 (以下單位圓)

債權償却金	四、八一二、〇〇〇
證券償却	六九七、〇〇〇
建物償却	一、〇〇〇、〇〇〇

濠洲綿絲布

關稅高率引上

【電通東京電話】 濠洲政府는 去二日부터 綿絲布關稅高率引上을 行하얏는데 이에 對하야 日本은 今回의 關稅引上은 形式上日本에 對한 差別待遇는 아니나 日本綿絲布의 對濠洲輸出에 거의 非公式으로 抗議할 意向을 가젓는데 十四日 시드니村井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通한 報告에 依하면 濠洲政府로서는 濠洲特產物의 顧客國間에 互惠的으로 何等의 條約을 締結할 意向이 잇다는 旨를 라이온首相이 演說하엿다 한다 外務省當局은 右라이온首相의 演說에 關하야 日本에 對하야서는 濠洲政府間에 互惠的條約을 締結할 用意가 잇는 旨를 公式으로 表明하얏다

商況(十五日)

▲東京爲替(十五日) 對米 賣三十弗八分一 買三十弗四分一 對英 賣一志二片十六分三 買一志二片四分一

▲大阪爲替(十五日) 對米 賣三十弗八分一 買三十弗四分一 對英 賣一志二片四分一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七

株式 閑散裡에 再强

前場閑散 昨後場一層閑散狀態를 이어 今日은 大株創立記念日로 休會임으로 東京人氣不變과 相俟하야 全然薄觀的閑散이엇스니 即東新百四十九圓七十錢低寄하나 九圓六十七錢에 下落頭强大引、日產百三十二圓十錢에 不變、大新九十五圓四十錢에 二十錢低大引、朝新二十九圓五十錢에 十錢低、日魯六十九圓丁、拓新十圓三、四十錢이엇다

後場寂寥 後場은 東新百四十九圓六十錢에 不變、日產百三十二圓丁에 十錢低로 各寄付後東新關門再上이엇는데 ▲大阪閣氣配는 東新百四十九圓三十錢、大新九十五圓四十錢、鐘紡百三十三圓丁、日產百三十一圓七十錢이엇다

大株創立紀念例休 大阪株式市場은 創立紀念日로 十五日前後場共히 例休이엇다

軟派高價抑壓

◇大株休會로 閑散

市勢의 모양은 確實히 强氣時代로 化한 모양이오 東新도 昨日東京이 百五十一圓丁에까지 올랏섯스나 北鐵交涉缺裂、取引所制度改善問題擡頭、增稅念慮、日蘭會商再惡化等을 가지고 가을市勢惡運으로도 보는 便에서 有力한 反賣場이라고 보는듯하야 高價를 抑壓하고잇고 또 今日은 大株紀念休會라 一層氣乘薄閑散商狀을 示하야 强氣도 積極態度를 避하얏스나 押目은 依然買物이 潜在하야 氣味頑强이엇다

理想的의 轉換 가을市勢序幕

根底는 絕對買

過去五六個月間 惡材料의 集積으로 모든것이 利用되고 好材料가 잇서도 効果가 업섯스나 [illegible]

株界六感

百五十圓還元의 東新에 對하야서 買方은 小利에 滿足하야 利喰을 急히하고 軟派는 有力한 賣場으로 보아 今商場은 다시 百四十八、九圓臺

×

이미 底入되엇고 轉換된 東新을 買込할려면 하라 賣込하면 할수록 上市勢를 크게 할것이니 軟派가 要材料도 덤이는 것을 하나 들식 따저 보자

×

北鐵交涉은 結局不買成立될 性質의 것이오 日蘭會商도 解決되고야 말것이오 增稅도 설령 잇다해도 큰 增稅는 斷無갓스며 取引所制度改善도 根本問題에는 觸치 안흘터이라다

×

그러면 남는 것은 財政『인푸레』와 米國의 銀『인푸레』國際商品高의 好感等으로 秋高市勢의 展開가 期待될뿐

×

材料는 다 집어치우고 東新이 七月二十四日의 東京百三十八圓四十錢을 다시 깨뜨리지 안는限 押目買一貫而已로 打診해둔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三百二十枚

▲東亞土木 三、五〇 ▲月滿아루미 [illegible] ▲東亞殖產 一二、〇〇 ▲東滿칼푸 三、五〇 ▲日滿亞麻 [illegible] ▲滿洲土地 [illegible] ▲山陽 [illegible] 工作新 [illegible] ▲窒素新 [illegible] ▲人造肥料新 [illegible] ▲國光레온 [illegible] ▲東邦電力 [illegible] ▲東京人絹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日本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地紡 [illegible] ▲電化新 [illegible] ▲足利紡績 [illegible]

今日財界(十五日)

米(單位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三等白米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一斤 [illegible]

金 朝銀一萬貫入價 [illegible] 市中一萬貫入價 [illegible]

株(單位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各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 [illegible]

玉川水道新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에타파이新 [illegible] ▲朝鮮 푸레푸 [illegible]

米期 少强後에 更弛

前場强硬 昨後場大阪地二十七圓五十八錢止와 共히 二十四圓五十錢에 撮音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七圓五十六錢인 二丁反落音撥하고 二十四圓五十一錢인 反히 一丁高로 提音給하얏고 阪地五十錢으로 更히 五十四錢까지 小戾하엿다가 五十二錢에 止撮音伴하야 四十六錢까지 下押하엿다가 結局五十四錢으로 五十一錢에 止撮하다

後場更弛 後場은 二十四圓五十三錢에 二丁高로 給撮後 二節四十八錢、三節四十七錢에 更弛軟調이고 閉欄가 되어 止撮하다

當分彷徨狀態

押買戾賣로

新市는 限이 下鞘로 發會한後 一時三四十丁의 反落을 告하고 因而臊勢를 持續하야 政府所有古米의 繼續拂下와 朝鮮의 貯租八十萬石解除等 惡材料가 續出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凶作의 氣分을 調和한 買物이 十四圓六十錢臺를 示하더니 買方의 利退와 防戰的買物이 續出하얏스나 依然四十餘丁의 瓦落을 告하엿다 그러나 大體의 形勢는 오히려 買의 人氣로 結局小揚散에서 [illegible]이다 要하면 昨今의 事情은 拂下米의 價格如何와 成績如何를 兩方共히 注目中으로 押目買戾賣의 狀態를 呈하나 그러나 압흐로 모든 厄日이 걸쳐잇는 만큼 天氣의 如何를 警戒치 안흘 수도 업는바 近天氣는 良好하다는 것보다 險惡하기가 十居八九일것 가틈으로 絕對安心買는 하지 못할 모양이다

一時的現象과 將來의 米價觀

目前의 各地商勢는 急騰落을 許할 能力이 업시 一二十丁乃至二三十丁範圍內에서 往來하면서 政府拂下米의 價格과 成績如何를 注目할뿐이다 勿論拂下의 結果를 따라 多少波紋을 惹起할 것도 事實이나 그러나 此는 騰落間에 一時的現象에 止하고 말것이오 新局大勢는 此以上의 超然한 高價를 演하고야 말것갓다 그 理由는 今年度端境期까지의 朝鮮米需給은 拂下와 解除로써 充足하기로 하고 明年度食糧問題를 一考한다면 今年度와 新米時代와는 全然正反對의 現象으로 米價高騰을 防止하자는 政策을 講하게 될지도 未知임으로 將來의 米價는 結局上放할 것으로 볼수박게 업다 果如何오?

米界餘話

◇ 昨今의 市勢는 떠러질뜻하고도 올으고 올을뜻하고 떠러진다 그래서 小口側은 中途에서 갈팡질팡할뿐

◇ 그런데 政府의 拂下와 正租의 解除等으로 보아 足히 賣成의 條件을 삼을 수 잇스나 稻作狀態로 보아서는 또한 强氣化하지 안을수 업다

◇ 朝鮮의 凶作은 勿論 日本內地도 平年作이 될락말락 그뿐만 아니라 本年은 世界가 모다 凶作이라고

◇ 世界的으로 食糧問題를 解決하라면 米食國에 香米과 밀가루가 들어올것이며 빵먹는 나라로 쌀과 香이 나갈지도 未知

◇ 그리되면 消費者를 爲하야 米價調節을 하라는 政府로서도 한번 考慮할 일이야

◇ 大正八年度의 市勢가 再演할지도 亦未知?

各地正米

朝鮮內各地의 市勢는 保合이어 [illegible] ▲賣方依然(旗取)正米側(乘替)多木、西側▲買方에 京城東、地場、朝鮮側、高瀨側、神戶側

京城低弛 實買共히 拂下의 結果를 待하는 取引이 極度로 不振이오 期米保合이나 市況은 二十錢低인 ⑦三等二五、〇〇 四等二四、八五 一等白米一八、〇〇

仁川低落 當業側은 거의 拂下에 觀望하고 잇슴으로 이 結果를 기대리고 新規商談은 繼續傍觀態度로 市況은 閑散한 中 二十錢低인 ⑦三等二五、〇〇 四等二四、八五 一等白米二〇、〇〇

群山頑强 出廻가 업고 期米保合으로 日本內地로부터도 入電이 업서 休商同樣의 無風狀態이나마 滿品薄으로 期米下鞘을 돗고 入氣頑强하야 品에 依하야는 十錢高인 ⑦三等二五、二〇 四等二五、〇五 一等白米一、四〇

木浦焦付 出廻가 업고 拂下關係로 買方의 態度가 冷靜하야 低唱으로 賣惜과 相俟하야 午前中無取引에 終하고 市況焦付인 ⑦三等二五、四〇 四等二五、二〇 一等白米一〇、二〇

南浦不變 環境의 不味로 一般이 高價警戒인 一方賣方도 低價에는 賣應치 안어 取引이 잘 안되어 氣配는 前價와 不變인 ⑦三等二五、三〇 四等二五、二〇 一等白米一〇、二〇

釜山焦付 出廻十五百叺 拂下를 압두고 高價는 傍觀하야 市況이 不冴이오 當用必需買가 散見되어 市況이 全혀 不變이오 取引高九百十九叺 ⑦三等二四、八〇 四等二四、六〇 一等白米一〇、七四

大邱低落 拂下와 七夕을 압두고 買方이 傍觀하야 賣行이 不良하고 十錢低落인 ⑦三等二四、三〇 四等二四、〇〇 一等白米一〇、一五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 [illegible] ▲中限(賣) [illegible] ▲先限(賣) [illegible]

堂島前場安定

【大阪電話】 政府의 政策에 對한 一般의 氣迷로 鞘方이 氣乘치 안코 小浮動

仁川期米 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財界의 過去

歐洲大戰後廿年

◇日銀勘定(單位千圓) 大正三年末 昭和九年六月末: 一般預金、政府預金、外國爲替貸金、公債、貸出金 [illegible]

◇各種保險契約高(單位千圓) 大正三年末 [illegible]

◇官私鐵道 乘客數 貨物噸數 [illegible]

◇米產額(單位石) [illegible]

◇礦產額 ◇生絲產額 ◇畜產物價額(單位千圓) [illegible]

金融

海外經濟(十五日)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大阪金利(14日)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貨入價 [illegible]

米穀(十五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14日)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十五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14日) [illegible]

朝油冷價 [illegible]

錦撚粕冷價 [illegible]

滿洲商品 [illegible]

大連特產時勢 [illegible]

株式(十五日)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十五日)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十四日)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十五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